비교문화연구 제56집 (2019.9) pp.343~390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 국가정체성 담론 비교: 아스투리아스의 『과테말라의 사회학. 원주민의 사회적 문제』와 코스타리카 정체성 담론 형성 과정에 나타난 인종개념을 중심으로* **

전 용 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자유주의 개혁시기(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의 국가정체성 담론에 인종 개념이 어떠한 외연과 의미로 투영되었는지 비교, 분석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마야문명의 본산이었던 과테말라는 당시 중미에서 원주민 인구의 비율(전체의 약 60%)이 가장 높았으며, 코스타리카는 역으로 이 지역의 대표적인 '백인국가'를 자처하고 있었다. 이처럼 현저히 다른 인종 구성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국가정체성 모색과정에서 유사한 외연을 노정(露呈)시켰다. 즉, 원주민이나 흑인은 물론 메스티소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백인'의 인종적 가치를 정체성의 핵심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과테말라의 경우 사회다윈주의와 우생학 등 실증주의적, 과학적 인종주의 사상의 세례를 받은 '1920년 세대'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의 백인화'를 추구했으며 코스타리카는 소위 '올림포스 세대'가 '중미의 스위스' 신화를 구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두 나라가 표방한 국가정체성의 외연은 유사할지라도 그 내면의 의미에는 공통점과 더불어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었다. 당대에 보편적으로 수용되던 '과학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3049421)
** 이 연구는 2019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www.kci.go.kr

적 인종주의'사상의 영향은 공통분모를 이루었으나, 식민시대 이후 두 나라가 밟아 온 차별적 발전과정과 인종구성의 상이함에서 차이가 파생되었던 것이다.
본고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두 나라 정체성 담론의 외형적 특징들을 일별하고, 그 이면에 내재하는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과테말라의 경우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의 청년기 논문인 『과테말라의 사회학. 원주민의 사회적 문제 *Sociología Guatemalteca: el problema social del indio*』(1923)를 중심으로 '1920년 세대'에 속하는 주요 지식인들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코스타리카는 19세기 중반 이후 이 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에 의해 '백인국가' 신화가 유포, 형성되는 과정과 이러한 '상상의 공동체'를 공식화하려 했던 '올림포스 세대' 지식인, 정치인들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주제어 :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국가정체성, 과학적 인종주의,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 1920 세대, 올림포스 세대

Ⅰ. 들어가는 말

원론적인 차원에서 국가정체성이란 영토, 언어, 종교, 인종, 문화의 동질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정체성의 객관적 개념(concepción objetiva de la identidad nacional)'[1]을 모두 충족한 사례는 현실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다. 특히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정체성 탐색은 원론과 현실의 큰 간극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흑역사(Leyenda Negra)'로 상징

1) 에리카 골체(Erika Gólcher)는 이러한 요소들(영토, 언어, 종교, 인종, 문화적 동질성)을 국가정체성의 '객관적 개념'이라 명명한다. 반면 역사발전과정에서 구성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공유되는 정신적, 사상적인 산물들(사명감, 일체감, 국가의식 등)은 국가정체성의 '주관적 개념(concepción subjetiva)'에 해당한다. 이 두 개념은 서로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즉, 국가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념을 모두 활용하여야 한다. Erika Gólcher, "Reflexiones en torno a la identidad nacional costarricense", 1993, pp.92-93. 이 논문은 원래 *Anuario de Estudios Centroamericanos*, Universidad de Costa Rica, 19(2), 1993, pp.91-99에 수록된 것임. 본고는 이 논문을 인터넷 사이트(file:///C:/Users/admin/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O5UPX6EX/Dialnet-ReflexionesEnTornoALaIdentidadNacionalCostarricens-5076050.pdf.)에서 다운로드 받았음. 향후 본 논문에 인용되는 모든 인터넷 학술자료들의 출처는 참고문헌에서 일괄적으로 표기함.

www.kci.go.kr

되는 정복과 식민과정에서 인종, 언어, 종교, 문화 등 정체성의 거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급격한 파괴와 이식, 무질서한 변형과 혼종의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이다. 즉, 이 지역 국가들은 정체성의 원론적 전제인 '동질성(homogeneidad)'과는 거리가 먼 '이질성(heterogeneidad)', '다양성(diversidad)', '중층성(multiplicidad)'의 특징을 잉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정치적 독립 이후 20세기 초반까지 국가형성과정에서 – 도밍고 파우스티노 사르미엔토(Domingo Faustino Sarmiento)의 '문명과 야만(Civilización y Barbarie)', 호세 엔리케 로도(José Enrique Rodó)의 '아리엘주의(Arielismo)', 호세 바스콘셀로스(José Vasconcelos)의 '보편인종(Raza Cósmica)'이 보여주듯 - '정체성 담론'에 집착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동질성의 부재'가 낳은 정체성 수립의 갈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와 20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문화적, 지역적, 인종적, 철학적 정체성과 관련된 심오한 글들을 썼는데, 이러한 연구들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인종의 개념'이다."[2]라는 지적처럼 이 시기 라틴아메리카 정체성 담론의 맹아(萌芽)는 사람, 즉 인종문제였다. 피부색에 따라 정복자와 피정복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족적이 명확히 분기되었던 역사적 경험에 따라 인종은 단순한 생물학적, 인류학적 개념을 넘어 국가의 발전전략, 국가적 미래와 직결되는 주요한 사안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정체성 논의에 투영된 인종개념은 표면적으로는 국가별, 지역별로 상이한 외관을 보였으나, 그 기저에는 대체적으로 근대성 담론에 입각한 서구 중심적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었다.

본고에서는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의 사례 비교를 통해 이 시기(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인종 개념이 국가정체성 담론에 어떠한 기표(외연)와 기의(의미)로 직조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마야문명의 본산이었던 과테말라는 당시 중미에서 원주민 인구의 비율(전체의 약 60%)이 가장 높았으며, 코스타리카는 역으로 이 지역의 대표적인 '백인국가'를 자

2) Manuel Vargas, "La biología y la filosofía de la 'Raza' en México: Francisco Bulnes y José Vasconcelos", en Aimar Granados y Carlos Marichal(compiladores), *Construcción de las identidades latinoamericanas. Ensayos de historia intelectual siglos XIX y XX*,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2004, p.159.

www.kci.go.kr

처하고 있었다. 이처럼 현저히 다른 인종구성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국가 정체성 모색과정에서 유사한 기표(외연)를 노정(露呈)시켰다. 즉, 원주민이나 흑인(afrodescendientes)은 물론 메스티소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백인'의 인종적 가치를 정체성의 핵심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대혁명(1910) 직후 '보편인종'으로 상징되는 메스티소의 가치와 잠재력 – 소위 '메스티소 중심(mestizofilia)'사상 -을 국가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았던 인근의 멕시코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현상이었다.[3] 과테말라의 경우 사회다윈주의(darwinismo social)와 우생학(eugenesia) 등 실증주의적, 과학적 인종주의 사상의 세례를 받은 '1920년 세대(Generación de 1920)'[4]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의

---

3) 카사우스 아르수(2014)는 20세기 초반 중미인들은 메스티소적 정체성을 추구한 멕시코의 경험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노선을 추구했다고 말한다. 즉, 중미 엘리트들은 국가건설과정에서 원주민이나 흑인을 배제한 '백인화(blanqueamiento)'를 추구했는데, 그 주요 배경으로 텐(Hippolyte Taine), 고비뉴(Joseph Arthur Gobineau), 르 봉(Gustave Le Bon), 르낭(Ernest Renan), 골턴(Francis Galton) 등 19세기 유럽의 과학적, 실증주의적 인종주의 사상가들의 영향을 꼽고 있다. 그녀는 중미국가들 중 특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의 세 나라에서는 이 시기에 "메스티소가 국가정체성의 주춧돌로 간주된 적은 결코 없었다."라고 단언한다. - Marta Elena Casaús Arzú, "El mito impensable del mestizaje en América Central. ¿Una falacia o un deseo frustrado de las élites intelectuales?", *Anuario de Estudios Centroamericanos,* Núm. 40, Universidad de Costa Rica, 2014. p.92.

최진숙(2007)도 멕시코와는 달리, 과테말라에서는 '메스티소'의 국가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 과테말라에서 인종의 정치학은 멕시코와 유사하게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형성된 국민주의(nationalism)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과테말라의 경우 멕시코와는 달리 '혼혈' 담론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는, 즉, 문화적으로 변용된 인종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 최진숙,「과테말라에서의 "인종"(race) 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라틴아메리카연구』, Vol.20, No.3, 2007.09, 183-184의 각주 12)번 참조.

4) '1920년 세대'는 20세기 초반 가장 두드러진 과테말라의 지식인 집단으로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 세사르 브라냐스(César Brañas), 다빗 벨라(David Vela), 오라시오 에스피노사 알타미라노(Horacio Espinosa Altamirano), 카를로스 사마요아 친치야(Carlos Samayoa Chinchilla), 에파미논다스 킨타나(Epaminondas Quintana)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인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었다. 대부분 중산층 자본가와 저명한 과두지배계급(oligarquía)의 엘리트 가문 출신들로, 철학적으로는 19세기 자유주의(liberalismo decimonónico)와 인종주의적 성향을 띤 스펜서의 실증주의 사상(positivismo spenceriano), 그리고 고비노와 르 봉,

www.kci.go.kr

표백(blanqueamiento de la nación. 즉, 국가의 백인화)'을 추구했으며 코스타리카는 소위 '올림포스 세대(Generación de Olimpo)'가 '중미의 스위스(Suiza centroamericana)' 신화를 구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러한 '백색 담론'들은 전자(前者)에서는 학생, 노동자, 시민들이 호르헤 우비코(Jorge Ubico, 1931.2-1944.7 집권) 독재정부와 그 후속 군사정권을 무너뜨린 1944년 '10월 혁명(Revolución de octubre 1944)'이전까지, 후자(後者)에서는 백인신화의 허구성을 폭로한 마리오 산초 히메네스(Mario Sancho Jiménez)의 기념비적 에세이『중미의 스위스, 코스타리카 *Costa Rica, Suiza centroamericana*』(1935)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 – 즉 대략 1930~40년대까지 – 주류를 이루며 확대 재생산되었다. 그러나 두 나라가 표방한 국가정체성의 기표는 유사할지라도 그 내면의 기의에는 공통점과 더불어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었다. 당대에 보편적으로 수용되던 '과학적 인종주의'사상의 영향은 공통분모를 이루었으나, 식민시대 이후 두 나라가 밟아 온 차별적 발전과정과 인종구성의 상이함에서 기의의 이질성이 파생되었던 것이다.

본고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즉, 두 나라 정체성 담론의 외형적 특징들을 일별하고, 그 이면에 내재하는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 고찰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으로는 과테말라의 경우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Miguel Ángel Asturias)의 청년기 논문인『과테말라의 사회학. 원주민의 사회적 문제 *Sociología Guatemalteca: el problema social del indio*』(1923)를 중심으로 '1920년 세대'에 속하는 주요 지식인들의 입장을 분석할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19세기 중반 이후 이 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에 의해 '백인국가' 신화가 유포, 형성되는 과정과 이러한 '상상의 공동체'를 공식화하려 했던 '올림포스 세대' 지식인, 정치인들의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코스타리카의 사례는 주로 본 연구의 선행 연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최근의 논문 성과를 활용하고자 한다.[5)]

텐 등 프랑스의 인종퇴행이론(teorías degeneracionistas francesas)의 신봉자들이었다. 이 세대의 지배적인 관심사는 국가의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원주민을 "국가의 진보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해물로 간주했으며, 진정한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할 문제"로 인식했다.

- Magdalena Perkowska, "Una nación imposible: el *Bildungsroman* e imaginarios culturales en *El misterio de San Andrés*, de Dante Liano", 2012, pp.15-16.

5) 전용갑,「중앙아메리카 근대사상 연구: '중미의 스위스'코스타리카, 만들어진 신화」,『세계문학비교연구』67집, 2019, 159-194쪽.

www.kci.go.kr

그동안 국내 관련학계에서 중미지역 국가들의 지역적 정체성을 탐색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인근대국인 멕시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취지는 – 궁극적으로 - 소규모로 산재한 중미국가들의 고유성을 인식함으로써 향후 이 지역 연구의 지평을 한 층 확장하는 데에 있다.[6)]

II. 과테말라

1. 아스투리아스의 『과테말라의 사회학. 원주민의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1.1 당대의 인종관 이해를 위한 텍스트

『과테말라의 사회학. 원주민의 사회적 문제』는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가 1923년 과테말라 산 카를로스 대학교(Universidad de San Carlos) 법대를 졸업하며 발표한 학위 논문(Tesis de Licenciatura)이다.[7)] 이 글은 아스투리아스의 문학적 여정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원주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징표 중의 하나[8)]일 것이다. 하지만 본

본 연구는 2015년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중앙아메리카 근대사상연구: 20세기 중반 정체성 담론을 중심으로/ 2년 과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당초 연구계획서에 의거하여, 이 논문은 1년차 개별국가연구에 이은 2년차 국가 간 비교연구의 성과를 담았다. 즉, 1년차 연구에서 코스타리카를 다루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1년차 연구성과와의 비교를 시도하였음을 밝힌다.

6)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중미지역 고유의 정체성 문제에 꾸준히 천착하고 있는 최진숙 등 일부 학자의 연구를 제외하면 아직 국내학계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성과는 많지 않다. 그러나 국제학계에서의 연구는 활발한 편이다. 본 연구는 수행과정에서 해외의 선행연구, 특히 카사우스 아르수(Casaús Arzú), 스티븐 팔머(Steven Palmer), 이반 몰리나(Iván Molina), 카를로스 소호(Carlos Sojo) 등 중미지역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조, 인용하였다.

7) 이 글은 논문(tesis)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풍부한 비유와 수사적 표현 등 문학적 문체로 인해 에세이(ensayo) 장르로 분류할 수 있다.

8) Giuseppe Bellini, "Dimensión mítica del indigenismo en Miguel Ángel Asturias",

www.kci.go.kr

고에서는 이 텍스트를 그의 작가적, 문학적 층위에서가 아니라 당시 과테말라에서 논의되었던 정체성 담론의 일환으로서, 특히 원주민에 대한 당대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다룰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전 조율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이 논문의 논쟁적 성격에서 기인한다. 즉, 아스투리아스는 과테말라의 미래 국가정체성을 궁극적으로 북유럽, 독일이민의 '새로운 피(sangre nueva)'의 수혈을 통해 모색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낸 원주민관(觀)은 – 그의 이름을 딴 문학상 수상 거부 사례[9]에서 볼 수 있듯 - 오늘날까지도 왕왕 '인종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작가가 자신의 첫 작품(『과테말라의 전설 *Leyendas de Guatemala*』, 1930) 발표 7년 전에 쓴 이 논문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삶의 말년에 작가 자신도 이 논문이 '치기어린 열정(juvenil entusiasmo)'의 산물이며, 제시했던 방안 역시 오류였다고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 만일 (유럽의) 이민자들을 수용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원주민과 혼혈을 이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불쌍한 토박이들(원주민들)의 주인이나 고용주 혹은 감시자가 된다는 것을 지나 온 시간의 경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10]

또한 '젊은 아스투리아스'를 인종주의자로 낙인찍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일 것이다.[11] 그 시절 '인종주의'는 과학적 이론

1989, p.107.

9) 2003년 과테말라의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 국가문학상(Premio Nacional de Literatura de Guatemala 'Miguel Ángel Asturias') 수상자로 선정된 원주민 시인 움베르토 아카발(Humberto Ak'abal)은 이 상의 수상을 거부하여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수상 거부 사유로 아스투리아스의 논문『과테말라의 사회학. 원주민의 사회적 문제』를 들었다. 즉, 아스투리아스가 이 논문에서 "과테말라의 원주민들을 쓸모없는 인종으로 취급하며 경멸"했는데 "원주민인 자신이 그의 이름을 딴 상을 받는 것은 전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 "Poeta indígena rechaza premio", *BBC MUND*, 24 de enero de 2004.

10) Giuseppe Bellini, *op. cit.*, p.108.

11) "논문을 쓸 당시 아스투리아스가 사용한 이론은, 19세기부터 1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세계의 모든 식자(識者)들이 사용한 것이었다. 그것은 탐구하는 현상을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묘사하려 했던 실증주의 이론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비록 원주민에 대한 아스투리아스의 묘사가 오늘날에는 우스워 보이지만,

www.kci.go.kr

의 하나로서 매우 폭넓게 수용되었기 때문이다.[12] 따라서 그 시기에 아스투리아스와 유사한 견해를 펼친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독 그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진 데에는 훗날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유명세도 자리하고 있다.[13] 사실, 아스투리아스의 근본적인 의도가 '사회악의 개선'에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는 서문에서 이 논문이 과테말라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에 기저"[14]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정론(determinismo)을 맹신하던 당대의 과학적 인종주의와는

당시에는 맞는(correcta) 것이었다.〔…〕나는 그의 논문이 인종주의적인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아스투리아스가 살던 당시의 사회가 인종주의적이었던 것이다."- Mario Cordero Ávila, "Sociología guatemalteca de Miguel Ángel Asturias", *Diario Paranoico*, 11 de junio de 2007.

12) "이 시기(19/20세기 전환기)는 과학적 인종주의의 전성시대였다. '생존투쟁', '자연선택과 최적자의 생존', '우수한/열등한 유전자', '인종개량'과 같은 사회다윈주의와 우생학/인종위생학의 공리를 공유한 수많은 인종이론이 유행했다. 인류사회학(Anthroposociologie), 인종인류학, 인종 및 사회 생물학, 사회인류학, 정치인류학 등으로 다양하게 호명된 수많은 다윈주의적 인종과학들이 국민국가의 발전을 위한 사회생물학적 패러다임의 근간이 되고자 백가쟁명으로 다투고 있었다." - 나인호, 『증오하는 인간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9, 272쪽.

13) 이와 관련하여 과테말라의 작가 바트레스 비야그란은 2016년 9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과테말라의 사회학. 원주민의 사회적 문제』에는) 1923년에 변호사 과정을 마치던 24세 젊은이의 관점이 담겨있다. 그의 논문은 '원주민을 어떻게 하면 문명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당시 유행하던 이론들을 재차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스투리아스가 이러한 이론들을 취합하면서 우생학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는 건강, 음식, 음주에 관련된 원주민들의 습관을 바꾸고자 했다. 하지만 그것은 원주민을 모욕하거나 차별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당시의 악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호르헤 가르시아 그라나도스(Jorge García Granados), 호르헤 루이스 아레올라(Jorge Luis Arreola), 페르난도 후아레스 무뇨스(Fernando Juárez Muñoz) 등 1920년대의 다른 작가들도 자신들의 졸업논문에서 비슷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아스투리아스처럼 비난을 사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아스투리아스가 지녔던 세계적인 명성을 얻지 못했으며, 그들이 쓴 논문은 도서관의 서가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 Ariel Batres Villagrán(Entrevistado) y Emi Aqueche(Entrevistadora), *Apuntes para entrevista sobre Miguel Ángel Asturias: a 70 años de 'El Señor Presidente'*, Guatemala, 4 de septiembre de 2016. p.21

14) Miguel Ángel Asturias, *Sociología guatemalteca: el problema social del indio*, 1923, p.4. 차후 인용되는 이 텍스트는 본문 및 각주의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함.

www.kci.go.kr

달리, 자신은 오히려 과학주의를 경계하고 있다고도 말한다. 즉, "과학을 위한 과학(la ciencia por la ciencia)은 지나치게 협소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간의 가장 고귀한 행위인 사랑을 허용하지 않는다."(4)고 언급하며 자신의 연구는 '삶을 위한 과학(la ciencia por la vida)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서문에 나타난 의도를 종합해 보면, 아스투리아스는 국가와 사회의 미래지향적 정체성을 제시하기 위해 원주민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당시로서는 과학적인 담론으로 여겨지던 '인종주의'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논문의 내용이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나, 아스투리아스와 같은 사상가조차도 더 진보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당대의 생각"[15]을 읽는 데에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아스투리아스의 육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당대의 생각'을 살펴볼 것이다.

1.2 원주민에 대한 통시적 고찰

아스투리아스는 원주민 문제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단지 잊혔던 것"(6)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뛰어난 학문적 자질을 지닌 인물들이 이 분야에 헌신해 왔으나", 대개의 경우 "흥미롭고 매혹적인 이야깃거리들을 우리들에게 마련"(6)해 주었을 뿐, 근본적인 해법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16] 따라

15) Jessica Masaya Portocarrero, "Miguel Ángel Asturias, ¿racista o solo representante de su tiempo?", *Diario de Centro América,* 16/10/2017.

16) 이와 관련하여 아스투리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라스카사스 신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 원주민 문명은 인간 지식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 매우 복합적인 문제들을 제시해왔다. 〔…〕역사가, 종교인, 군인, 박사, 철학자, 경제학자들이 고심에 찬 열정을 쏟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무슨 언급을 했는가? : 그들은 때로는 잉카와 추장, 카우디요와 공주들의 무덤을, 사원과 도시, 요새와 궁전들의 유적을 새롭게 치장했다. 몇몇 연대기 작가들이 전하는, 인신공양으로 얼룩진 종교제의와 제국들 사이의 전쟁, 왕실의 화려함 등, 세척의 범선에 나누어 탄 또 다른 세력과 문명이 해안에 도착할 당시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흥미롭고 매혹적인 이야깃거리를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었을 뿐이다. 또한, 때로는 원주민들에게 새로운 교리와 전쟁기술을 가르치거나, 때로는 원주민 보호를 위한 법령과 조언을 제정했을 뿐이다.(6)

www.kci.go.kr

서 아스투리아스는 “과테말라의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추상적인 지식들이 아니라, 이 나라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7)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사회적 현실(realidad social)’은 역사 연구를 통해 인식될 수 있다. “인간의 삶은 역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드러나기 때문”(11)이며, 역사 연구는 “요정이야기 차원을 넘지 못하는 담론들을 검증하고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11)이다. 그러나 그는 서두에서 원주민이 오로지 “과거의 문명을 대변”(8)하는 시효성이 종료된 ‘인종집단’임을 예단함으로써 자신의 논리가 당시 유행하던 우생학과 사회다윈주의 등 ‘과학적 인종주의 사상’에 기저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아스투리아스는 통시적 관점에서 원주민 사회의 변천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그는 인류 사회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미개(salvajes) - 야만(bárbaros) - 반야만(semi-bárbaros) - 반문명(semicivilizados) - 문명(civilizados)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진화과정으로 파악한다.

> 스페인인들이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은 어떠한 사회적 상태에 놓여있었는가? 미개인들이었는가?, 야만인들이었는가?, 반야만인들이었는가?, 반문명인들이었는가?, 문명인들이었는가? 이는 내가 답변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이다.(12)

아스투리아스는 자신이 분류하는 인류사회의 발전단계가 어떠한 준거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17] 다만, 이와 같은 진화론적 사회발전론이 인종우월주의를 최초로 형상화한 독일의 계몽사상가 크리스

17) 그는 논문에서 ‘반야만’과 ‘문명’이외의 다른 개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집트, 인도, 중국 등 구대륙의 대표적인 고대문명들과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과테말라 원주민 문명(마야문명)을 ‘반야만’으로 칭하는 것으로 보아, ‘미개’와 ‘야만’은 그보다 저발전 단계의 사회적 상태를 일컫는 것이 분명하다. 반면, 구성원들의 산업적, 지식적, 도덕적 활동이 모두 발전한 사회를 ‘문명’으로 지칭하는데, 이러한 사회는 아직 인류역사에서 구현된 적이 없는 유토피아적 이상향으로 설정된다. 한편, ‘반문명’이라는 용어는 아스투리아스가 이 논문을 쓸 당시 과테말라의 특정 사회계층(전문직들, 학생들, 상인들, 기자들 등)을 언급하며 사용되는데(논문 6쪽),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부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문명’이 ‘반야만’ 과 어떠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포착하기 어렵다.

www.kci.go.kr

토프 마이너스(Christoph Meiners, 1747-1810)[18] 이래 과학적 인종주의자, 사회진화론자 사이에서 일반화된 인식[19]이었음을 감안할 때 당대의 개념을 큰 문제의식 없이 수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스투리아스의 '문명'개념이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그가 정의하는 '문명'은 현실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화된 유토피아에 가깝기 때문이다.

> 문명은 산업적(industrial), 지식적(intelectual), 도덕적(moral)인 세 가지 의미에서 인민들의 행위가 모두 발전을 보일 때 이루어진다. (하지만) 역사에서 우리는 그러한 발전을 이룬 민족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집트(테베 시대)에서는 산업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며, 인도에서는 지식이, 중국에서는 도덕의 발전이 지배적이었다. 문명은 계속해서 모든 민족들이 지향하는 이상이다. 그리고 아마도 세월의 변화 속에서, 예기치 않은 원인들과 인간의 규칙적인 노력에 의해, 근면하고, 박식하고, 덕망 있는 활동들이 모두 발전한 국가가 나올 것이다. 단지 그러한 나라만을 문명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13)

이와 같은 구도 하에서 아스투리아스는 서구인들의 도래 이전 원주민 사회를 '반(半)야만'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가 말하는 '반야만' 상태

---

18) 괴팅겐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마이너스는 자신의 고유한 세계사 패러다임을 창안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류사'였으며, 그의 '인류사'가 최초의 인종주의 역사학이었다.(나인호, *op. cit.*, 44쪽) 그는『인류사개요』(1785)에서 심미적 특성에 따라 인종의 스테레오 타입을 정하는 표준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각 인종의 이러한 신체적 특징이 정신적 소질과 심리적 특징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가정을 세웠다.(*ibid*., 52-53쪽) 심미적 기준에 따른 인종의 위계서열을 '미개-야만-반계몽화(반문명화)-계몽화(문명화)'라는 문명의 발달 정도에 따른 구별과 일치시켰다. '미개, 야만, 반문명화된, 완전히 문명화된' 민족들을 나누는 현재의 기준은 "그릇되거나 정확하지 않으므로", "자연의 원래적 상태(인종)"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ibid*., 65쪽)

19) 예컨대 19세기 중반 영국 인종학회(Sociedad etnológica) 회원인 프레데릭 파라(Frederick Farra)는 인종(razas)을 '미개한(salvajes)', '반문명화된(medio civilizadas)', '문명화된(civilizadas)'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명화된' 인종은 아리안족(la raza aria)을 말하며, '미개'는 "과거도 미래도 없는, 빠른 속도로, 전면적이고, 불가피하게 소멸의 운명에 처한" 열등한 인종들이다.- Marta Elena Casaús Arzú(2014), *op. cit.*, p.79.

www.kci.go.kr

는 - 어감과는 달리 – 이집트와 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수준 높은 사회를 의미한다.

> (정복 이전 원주민들의 사회적 현실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사회적 상태, 즉 *미개*와 *야만*에서 벗어나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반야만*과 관련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반야만 상태는 조직화의 원리(principio de organización)에 의해 특징될 수 있다. 반야만의 도시들은 평화를 구가한다. 주민들은 일치되어 있으며 부유하다. 법을 적용하는 통상적인 형식이 있고, 종교적 숭배를 알며 별자리들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있다. 도시들에는 지고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다. 활동에 질서가 있으며, 노동에 규칙성이 있고 실용적인 지식이 넘친다. 〔…〕 우리들은 원주민들이 반야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적인 문명을 구현하지 못한 다른 민족들(이집트, 인도, 중국)을 그들이 이룬 부분적인 발전만을 고려하여 문명이라고 부른다면, 우리에게도 원주민들을 위해 문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12-13)

그러나 구대륙의 대표적인 문명들과 어깨를 견주었던 과테말라의 원주민 사회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하고, 그 역사적 우연이 정복자 페드로 데 알바라도(Pedro de Alvarado y Contreras)의 발길을 이곳으로 이끈”(14) 이후부터 급격히 붕괴한다. 정복과 식민 과정의 잔혹함 때문이었다.

> 정복은 매우 잔인하게 이루어졌다. 〔…〕 원주민들은 가장 혹독한 노예 상태로 복속되었다. 〔…〕 정복자들과의 싸움, 붕괴에 따른 굶주림, 원주민에 대한 끝없는 박해, 가뭄과 페스트는 번창하고 활력 넘치던 지역들을 사막으로, 제조와 농업의 중심지들을 적막하고 참담한 아시엔다로 바꾸어 놓았다.(14)

사실 서구인들의 도래는 두 문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인종, 새로운 문명을 창출할 수도 있었던 역사적 기회였다. 하지만 식민시기 내내 “원주민을 동물처럼 다루었던”(14) 스페인인들의 독선과 실책으로 인해 그러한 가능성은 좌절되었다. 스페인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보다 원주민의 고유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당시 유럽에서 가장 발달한

www.kci.go.kr

스페인 문명에 동화시키려 했던"(15) 무지와 조급함에 있었다.

> 스페인인들은 원주민을 야생의 동물처럼 여겼으며 결코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 다신교도인 원주민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믿도록 강요했다. 일부다처제인 원주민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단지 한 명의 아내만을 맞이하도록 요구했다. 〔…〕 봄날 아침 햇살을 머금은 잎사귀의 이슬방울처럼, 무수히 많은 자연의 풍광을 섬세하게 투영하던 원주민의 지식은 스페인 문명의 장점을 취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스페인 정신(alma hispana)을 대변할 수 없었던 탐험가들의 나쁜 혈통이 새로운 인종의 탄생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융합(fusión)을 좌절시켰다.(15)

이제 원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타의적으로 스페인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문화 사이의 장점을 결합한 '융합'대신, 불편하고도 기이한 '뒤범벅(mescolanza)'이 초래되었다.

> (정복과 식민화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그들의 풍습을 점차 잃어버렸으며, 자신들에게 남은 풍습에 그나마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요소들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그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종교사상과 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상한 뒤범벅이 초래되었다.(16)

인종간의 '혼혈' 문제는 논문 후반부에서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본격 거론되지만, 이 부분의 맥락을 통해 아스투리아스가 생각하는 '좋은 혼혈'과 '나쁜 혼혈'의 개념을 미리 엿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과학적 인종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혼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문명퇴보의 주요 원인으로 혼혈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는 프랑스의 아르튀르 고비노(Joseph Arthur Gobineau, 1816-1882)인데, 그는 『인종불평등론』(1853)에서 "'퇴화'는 문명을 건설한 고귀하고 위대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인종)이 열등한 사람들(인종)과의 혼혈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의 질이 더럽혀지면서 벌어진다."[20]고 보았다. 따라서 혼혈은 우수한 인종사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며 열등한 인종과

20) 나인호, *op. cit.*, 127-128쪽.

www.kci.go.kr

의 교배는 문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금기시되었다. 카사우스 아르수(1999)가 밝히듯 이러한 '고비노 사상'은 페르난도 후아레스 무뇨스(Fernando Juárez Muñoz)를 비롯한 당시의 과테말라 지식인들에게도 수용되었다. 아스투리아스도 기본적으로는 고비노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는 논문 후반부에 "혼혈은, 의심의 여지없이, 원주민에게 그들의 원시적 상태에서 유럽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넓은 문을 열어놓을 것"(47)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피'와의 혼혈을 촉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혼혈은 두 민족이 유사한 문명 수준을 갖추었을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47)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스투리아스를 비롯한 당시 과테말라 지식인들은 식민시대 스페인인과 원주민의 혼혈이 문명의 퇴보를 초래한 '나쁜 혼혈'이라고 간주한다. 그것은 아스투리아스의 지적처럼 "언어, 풍습, 신앙, 존재방식과 사고, 감성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원주민과 스페인인의 사회적 환경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47) 때문이다. 또한 에스피노사 알타미라로(Horacio Espinosa Altamirano)가 판단하듯 그들(스페인인과 원주민 사이의 혼혈)이 지닌 인종적인 불안함(desequilibrio)은 "원주민과 백인 사이의 폭력적인 접촉에서 야기된 것"으로, 그들의 인종적인 열등함 역시 "심리적으로 완전히 상반되어 불안함을 수반한, 두 인종 간의 폭력적인 결합에서 태어난 자식들"[21]이기 때문이다.

한편, 식민 과정에서 벌어진 더 큰 비극은 단순히 풍습의 변화가 아니라 원주민의 기질 자체가 변해버린 데에 있다고 아스투리아스는 지적한다. 즉, 식민시대의 착취와 억압이 인종의 퇴행마저 불러왔다는 것이다.

> 우리 역사 식민시대의 장(章)은 실수와 불의, 폭력과 강요로 얼룩졌다. 그 무엇도 원주민을 구원할 수는 없었다. 스페인 군주들의 선의와, 일찍이 호의적으로 제정된 인디아스의 법안들, 그리고 몇몇 선량한 사람들의 열정에 찬 기독교 복음도 역부족이었다. 비참함과 광기가 원주민들을 쇠약하게 만들었다. 〔…〕 (원주민들은 이제) 의식 없고, 광신적이고, 무기력

21) Horacio Espinosa Altamirano, *El libro del buen ciudadano, Guatemala, Tipografía nacional,* 1930, p.10 y sigs. Marta Elena Casaús Arzú, "Los proyectos de integración social del indio y el imaginario nacional de las élites intelectuales guatemaltecas, siglos XIX y XX", *Revista de Indias*, vol. LIX, núm. 217, 1999, p.802에서 재인용.

www.kci.go.kr

하고, 염세주의적인 신민들로 변해버렸다.(16)

따라서 원주민은 “어제는 용감했으나, 오늘은 비겁한”(36) 인종으로 퇴행했다. 아스투리아스는 결론적으로 “식민시대는 원주민에게 물질적, 도덕적, 지적인 능력의 쇠퇴를 의미한다.”(17)고 단정 짓는다. 자신이 제시한 인류사회의 역사적 발전단계론에 따르면 원주민들은 정복 이전의 ‘반야만’상태에서 그 이전의 ‘미개’ 혹은 ‘야만’ 상태로 퇴행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어서 아스투리아스는 독립 이후 오늘날(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원주민 사회는 식민시대에 비해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독립이 소수를 위한 소수의 독립이었으며〔…〕독립은 원주민에게 주인의 교체만을 의미했을 뿐”(17)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원주민의 삶은 식민시대보다 더 열악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1824년 11월 24일 제헌의회가 노예철폐를 선언했으나 “아무런 변화 없이 원주민은 계속 노예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국가의 농업발전이란 미명하에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17), 1877년 1월 발효된 토지개혁법으로 인해 식민시대 그나마 소유권을 인정받았던 “원주민 공유지들이 지주들의 수중으로 넘어가 버렸기”(18) 때문이었다.

1.3 원주민의 사회적, 인종적 특성

일부 인종주의적 관점을 제외하면, 거시적으로는 지금까지 살펴본 원주민 역사에 대한 아스투리아스의 통시적 고찰이 크게 논쟁적일 이유는 없다. 콜럼버스 이전시대 원주민 문명(마야문명)의 수준을 이집트, 중국, 인도에 버금가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정복과 식민화 과정에서 벌어진 억압과 착취를 고발하고, 독립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원주민들의 신산(辛酸)한 삶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이 현재까지도 신랄한 비판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논문 중반 이후 원주민의 현실여건(정치, 종교, 사회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들을 해부학, 생리학, 심리학 등 이른바 실증 과학적 차원에서 해석해 나가면서 ‘과학적 인종주의’의 음영이 갈수록 짙어지기 때문이다.

아스투리아스는 한 마디로, 원주민을 그 자체로는 더 이상 회생과 발전가

www.kci.go.kr

능성이 없는 '퇴행적' 인종집단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그들을 과테말라의 현재적 문제를 야기하고 미래로의 진보를 저해하는 '악(mal)'이라고 서슴없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원주민들의 정치적 삶은 무지로 점철되어 있다. 즉, "자기 부족에 대한 사랑은 매우 강하지만, 공화국의 존재를 모르고 조국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지역정부와 관련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며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23) 따라서 원주민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무지"(22)할 수밖에 없다. 인구의 다수가 이런 나라가 "쓸모없는 정쟁과 군부의 전횡, 혁명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질병들로 고통 받지"(23) 않을 수가 없다고 개탄한다.

종교적 측면에서도 원주민은 가톨릭의 외피 하에 여전히 기존의 다신교적 전통을 고수하고 있으며, 신앙생활의 목적 또한 현세에서의 기복(祈福), 즉 종교적 가치가 아닌 실리주의(utilitarismo)에 입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22] 이러한 '실리주의'는 비단 종교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까지도 지배하는 원주민의 가장 지배적인 삶의 원칙이다.

> 원주민의 심리에 대해 말하면서, 나는 그들의 실리주의를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그들의 종교적 삶은 물론 가족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구성원들의 실리주의로 인해 원주민 가족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제들 사이에서 무관심은 물론 증오까지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

22) 아스투리아스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원주민은 그들의 원시 종교와 가톨릭의 기이한 혼합을 이루어냈다. 〔…〕 전쟁의 신, 비의 신, 옥수수의 신과 그 밖의 다른 신들이 성인의 형상으로 재탄생했다. 예수그리스도에서 원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선혈인데, 그것은 피가 그들로 하여금 과거의 잔인한 의식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원주민들에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관념이 없다. 〔…〕 가톨릭의 이식이 원주민 문명화의 한 요소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가톨릭이 그들을 도덕적으로 교화시키지 못했다는 점도 분명하다. 〔…〕 이교와 가톨릭이 혼합된 그들의 종교에서 원주민은 아직도 실리주의자(utilitarista)들이다. 이타주의적인 감정은 그들의 종교생활에서 찾아볼 수 없다. 반대로, 그들의 종교적 삶에서는 타산적인(calculador) 모습을 볼 수 있다. 기도하고, 제물과 촛불, 성유를 바치는 것도 대가를 바라는 보상의 행위이다. 〔…〕 결론적으로, 원주민은 계속해서 다신교도들이며, 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들과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신들이 존재한다. (24-25)

www.kci.go.kr

> 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생존을 위해서는 식량이나 침대를 나누어야 하는 적(형제)과 싸워야하기 때문이다. 원주민에게 형제란 입이 하나 더 느는 것을 의미하며, 땅이 있는 경우에 그들의 증오는 과할 정도로 치닫는다.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형제는 자신에게 상속되는 땅을 빼앗으러 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26)

아스투리아스의 – 그리고 당시 과테말라에서 유행하던 - '과학적 인종주의'는 논문 5장의 하부단락 25항 '신체적 퇴행(Degeneración física)', 26항 심리적 퇴행(Degeneración psíquica), 27항 병인론(病因論, Etiología)에서 원주민의 열등한 인종적 조건을 거론하며 정점에 달한다. 그는 우선 원주민의 열등한 해부학적 특징으로 협소한 두정골(estenocrotafia), 정상보다 낮은 두개계수(indice cefálico)[23], 다른 인종보다 작은 신장과 체중을 거론하고 있으며(34-35), 생리학적(fisiológico) 특성으로는 "콩고의 주민들과 유사하고 유럽인종보다 열등한 기력", "건강한 신체기관에 비해 부족한 요소(尿素, urea) (35) 등을 열거하고 있다.

사람의 생김새, 즉 생물학적, 유전적 특성을 인종 간 우열의 척도로 삼는 것은 과학적 인종주의의 본질이다. 특히 신체적 특징 중에서도 두개골을 인종 분류의 준거로 삼는 것은 '프랑스 인종이론의 황제' 바세르 드 라푸즈(Georges Vacher de Lapouge, 1854-1936)와 그 추종자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실증적' 논거 중 하나이다.[24] 아스투리아스를 비롯해서 "원주민은 (무엇을 하든) 〔…〕 항상 원주민일 수밖에 없다."[25]라고 냉소적으로 단정한 사마

---

23) 머리의 앞뒤 지름과 좌우 지름의 비를 말하며, 인종적 특징을 나타낸다.

24) "바세르 드 라푸즈는 두개골 형태를 인종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았는데, 스웨덴의 레치우스(Andres Retzius)가 시작하고 프랑스의 브로카(Paul Broca) 등이 측정방법을 발전시킨 '두개계측학'의 두개지수(頭蓋指數, cephalic index)를 차용하여 두개골의 형태를 나누었다. 즉, 두개골의 최대 폭(너비)에 대한 최대 길이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75이하면 장두(長頭), 80이상이면 단두(短頭, 둥근 머리)로 규정했다.〔…〕바세르 드 라프즈는 이와 같은 신체적 대비에 더해 각 인종의 정신적, 심리적 특징을 추가한다. 즉, (장두에 해당하는 '지배인종'인) 유럽인종은 공명심이 있고, 에너지가 많으며, 용감하고, 이상주의적이며, 프로테스탄티즘에 친화성이 있다는 것이다." - 나인호, *op. cit.,* 292-295쪽.

25) Carlos Samayoa Chinchilla, "Algo más acerca del indio", *El Imparcial,* 28 de enero de 1937, Marta Elena Casaús Arzú(2014), *op. cit.,* p.86에서 재인용.

www.kci.go.kr

요아 친치야(Carlos Samayoa Chinchilla), “선조들과 관련된 메스티소의 생물학적 열등함이 어디에서 오든, 그 열등함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26] 라고 확언한 페데리코 모라(Carlos Federico Mora) 등 1920년 세대의 상당수는 – 프랑스에서 공부했거나 장기간 체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 이와 같은 프랑스 인종주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인종의 해부학적, 유전적 특징이 단순한 신체(외형) 구분에 그치지 않고 인종의 능력과 심리적, 윤리적 자질을 가름하는 선결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사마요아 친치야와 페데리코 모라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아스투리아스 또한 원주민이 심리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며”, “광신적이고, 약물 의존적이고, 잔인한, 퇴행의 명확한 징후들을 모두 보이고 있다.”(36)라고 단언한다. 이시기 과테말라의 국가발전 담론과 정체성 논의가 원주민의 장점을 수용하는 멕시코식(메스티소적) 대안을 거부하고, 최대한 그들의 피를 묽게 만들려는 ‘인종 개량’이나 혹은 아예 존재 자체를 폐기하려는 ‘인종 절멸’의 우생학적 해법으로 이어진 것도 이러한 사상적 흐름과 무관치 않다.

한편, 아스투리아스는 ‘병인론’적 관점에서 원주민 문제의 원인으로 “영양분이 적은 나쁜 식생활, 위생의 결여, 과중한 노동, 조혼(早婚) 풍습, 열대성 풍토병, 매독이나 결핵처럼 쉽게 전파되는 질병들, 알콜중독, 가난, 혼혈의 부재”(36) 등 사회적, 환경적, 유전적 요소들을 망라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원주민들의 비참함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37)라고 결론 짓는다.

1.4 원주민 문제의 해법

아스투리아스는 자신의 진단에 근거하여 논문 후반부에 원주민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다. 그가 도출해 낸 방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악(원주민문제)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는 아예 악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

26) Federico Mora, “Nuestro Modo de ser, esbozo psicológico”, *Revista Vida*, N.4, 3 de octubre de 1925, *ibid.*, p.85에서 재인용.

www.kci.go.kr

우선 원주민 문제의 ‘완화책’은 대부분 그가 ‘병인론’에서 열거한 원인에 대한 처방을 담고 있다. 즉, 조혼금지, 식생활개선, 과도한 노동시간 단축 등 풍습이나 생활상의 개선사항들[27]은 물론 교육과 위생, 혼혈 등 보다 심층적인 사회적 방안[28]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책을 제시한다. 아스투리아스가 ‘악의 완화책’으로 거론하는 마지막 방안은 혼혈이다. ‘완화책으로서의 혼혈’은 과테말라에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린 ‘스페인인과 원주민 사이의 혼혈’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두 인종 사이의 심각한 ‘문명의 차이’와 좋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이들의 결합이 ‘좋은 혼혈’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비관하고 있다.

> 원주민과 스페인인의 사회적 환경은 언어, 풍습, 신앙, 존재방식, 사고 방식과 정서 등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달랐다. 이러한 장애로 인해 그

---

27) 아스투리아스는 우선, 13~14세 무렵 결혼하는 원주민 여인들의 조혼풍습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과 육아를 동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허약한 자식들을 낳는 허약한 존재들(조혼하는 여인들)로는 과테말라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결혼을 금지시켜야 한다.”(40)고 주장한다. 옥수수와 콩 등 지방함유량이 적은 원주민들의 식습관 또한 문제이다. “기력 쇠퇴, 적혈구 수의 부족, 미미한 신장과 체중 등은 그들의 나쁜 식생활에서 비롯되었다.”(41)고 지적하며 계란과 고기 등 지방성분이 높은 (유럽식) 식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원주민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과도한 노동도 큰 문제로 제기된다. “농장주들은 원주민들이 게으르다고들 말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원주민들은 지나치게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 이는 오히려 노동효율성 감소의 원인이 되고 〔…〕 그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42)라고 지적하며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28) 아스투리아스는 “원주민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기주의자에서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저속한 사람에서 유능하고 지적인 사람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44)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방안이 중요하다. “어린 나이부터 자녀들의 작은 일손이라도 활용해야만 하는 원주민들의 비참한”(44) 삶의 여건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물재배, 목축 등과 관련된 지식들처럼 “학교공부와 가정의 일상적인 필요성을 조화”(44) 시키며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일깨울 수 있는 실용적인 관점의 흥미로운”(44) 커리큘럼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주민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기적인 기질을 정의와 사랑, 연대와 협력 등 숭고한 가치체계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방향성’에 있다. 또한 “원주민은 반(反)위생적인 인간의 전형”(46)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던 위생문제”(46)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www.kci.go.kr

> 들은 멀어졌으며, 서로 이해할 수 없었다. 새로운 사회나 인류의 형제애를 꽃피울 수가 없었다. 앞서 말한 이러한 차이들이 원주민과 스페인인 사이의 이격(離隔)을 심화시켰다. 전자는 후자의 학대에 시달려왔으며, 이 맹수(원주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했을 때, 후자는 전자에게 복수를 당하곤 했다. 혼혈은 사람들이 비슷한 문명수준을 지녔을 때 훨씬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현재 원주민은, 그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스페인인들의) 잔혹한 행위 때문에, 백인에 대해 오늘날까지 대를 이어 내려오는 증오심을 간직하고 있다.(47)

아스투리아스는 과테말라 사회를 구성하는 기존의 인종 요소로는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그는 두 번째 방안, 즉 악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묘약으로 외부로부터의 '이민' 수용을 제안한다. '기존의 피'로는 대안이 없으니, '새로운 피'를 수혈하여 원주민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악의 근절책'으로서의 '이민'은 자신들과 역사적 앙금이 강했던 스페인을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스투리아스는 바람직한 이민자들의 출신지역으로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바이에른, 뷔르템베르그, 티롤"(52)등 북유럽과 독일의 지명들을 구체적으로 호명하고 있다. 당시 바세르 드 라푸즈 등 과학적 인종주의자들은 유럽인 중에서도 독일이나 영국, 스칸디나비아, 네덜란드 등 북유럽에 거주하는 소위 '아리안 인종'이 남유럽의 '지중해 인종'보다 더 뛰어나다고 간주하고 있었는데, 아스투리아스도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고 있는 듯하다.

아스투리아스가 '새로운 피'의 도입을 주창하는 배경에는 교육과 같은 기존의 해법으로는 인종적 열등함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비관의식이 깔려있다.

> 그 중요성을 한 순간도 부정하고 싶지 않은 교육도 (원주민문제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 숙고해 보시라. 그러면 교육으로도 충분치 않다는, 교육의 바람직한 행위를 비껴가는 그 무엇이 있다는, 사람마다 그 기저에는 유전에서 비롯된 그 무엇이 있다는 점을 나와 함께 깨닫게 될 것이다. (49)

그에게 교육은 "단지 악을 지연시키기 위한 진통제"(49)에 불과하다. 따라서 "악의 원인을 찾아 그것을 절멸시킬 수 있는 인과관계적인 처방"(49)

www.kci.go.kr

이 필요한데, 원인이 원주민의 나쁜 유전적 혈통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방은 '새로운 피'를 주입하는 수밖에는 없다.

> 그들의 허약한 시스템을 보강할 쇄신의 혈류,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 〔…〕 원주민의 인종적 정체(停滯), 부도덕함, 무기력함, 사고방식의 저속함은 진보를 향한 활기찬 열망을 추동하는 혈류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50)

그리고 과테말라에 존재하는 일부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의 논거를 보충한다.

> 예를 찾자면,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독일인과 원주민의 혼혈을 보라. 훨씬 개선되었음을 쉽게 알아차릴 것이다. 독일인과 원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건장하고 똑똑하고, 신체적인 외양에 대해 말하자면, 미학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이다.(50)

마침내 아스투리아스는 원주민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생학적 해법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 경제적, 심리적 혹은 교육적인 대응이전에, 생물학적 대응이 필요하다. 삶, 피, 젊음, 이것이 원주민에게 필요하다. 〔…〕 원주민을 개량하기 위해 강하고 유능한 다른 인종의 요소들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 혼혈은, 인민의 특성을 근본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하며 확실한 방법이다. 유전(herencia)에는 오로지 유전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50-53)

이러한 사고는 중남미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프란시스 골턴의 우생학적 사고에 근거한다. 골턴은 – 돌이킬 수 없고 불가피한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열등 인종의 재생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고비노의 '염세주의적 인종주의'와는 달리 - 인종의 퇴화론을 수용하면서도 그 개량 가능성을 '낙관'함으로써 중남미 지식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북유럽과 독일의 '새로운 피'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아스투리아스 이외에도 에스피노사 알타미라

www.kci.go.kr

노, 카를로스 플레테스 사엔스(Carlos Fletes Sáenz), 라파엘 아레발로 마르티네스(Rafael Arévalo Martínez), 세사르 브라냐스 등 당시 지식인들의 신문과 잡지 기고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었다.[29] 한편, 이 시기에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피를 이어받은 메스티소의 정체성도 부정되었다.

> 이 기간 동안 지배적인 담론은 우생학, 인종의 퇴행, 원주민의 구제였다. (이 담론들은) 메스티소를 열등하고, 퇴행적인 인종으로 간주하여 거부하고 폄하하였는데, 이는 메스티소를 통한 통합 프로젝트 창출에 큰 장해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언론과 국회, 대학에서의 오랜 논쟁을 통해 반영된 이러한 입장이 국가정체성 의식형성을 막았으며, 다시금 원주민을 국가(의 범주)에서 배제시켰다.[30]

2. 커피산업의 발달과 인종담론의 부각

19세기 후반 ~ 20세기 초반 사이 국가정체성 모색과정에서 과테말라가 멕시코와는 달리 원주민은 물론 메스티소적 요소를 배제하고 '국가의 백인화'를 추구한 데에는 이와 같은 당시의 과학적 인종주의 사상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아스투리아스 류(類)의 담론이 횡행할 수 있었던 당시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함께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나라의 인종주의적 국가정체성 담론의 부상(浮上)이 시기적으로 '자유주의 개혁'(Reforma Liberal, 1871-1944)'기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다. 미겔 가르시아 그라나도스(Miguel García Granados, 1871-1873 집권)와 호르헤 루피노 바리오스를 중심으로 한 과테말라의 자유주의자들은 1871년 무장혁명을 일으켜 라파엘 카레라(José Rafael Carrera, 1847-1848, 1851-1865 집권)와 비센테 세르나(Vicente Cerna y Cerna, 1865-1871 집권)가 이끌던 30년간의 보수주의 정권을 끌어내렸다. 이 무렵 국제적 수요가 급증하던 커피는 신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었는데, 보수주의 정권도 커피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과테말라가 본격적인 '커피 공화국'으로 성장한 것은 독일자본을 등에 업은 자유주의 정권 하에서였

29) Marta Elena Casaús Arzú(1999), *op. cit.*, p.805.
30) *Ibid.,* p.780.

www.kci.go.kr

다.[31] 특히 1873년 그라나도스의 온건한 '구자유주의자들(viejos liberales)'을 밀어내고 권력을 잡은 바리오스의 급진적인 '신자유주의자들(nuevos liberales)'은 커피농장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격한 정책들을 서슴없이 단행했다. 주지하다시피, 커피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광활한 토지와 대규모의 저렴한 일손, 그리고 수출을 위한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건설이 필수적이었다. 바리오스 정권은 1873년 8월의 법령 104호(Decreto 104)와 1877년 1월의 법령 170호(Decreto 170)를 통해 각각 교회소유 토지와 원주민 공유지를 몰수하였으며, 1877년 4월에는 소위 '일용직 법(reglamento de jornaleros)'이라 불리는 법령 177호(Decreto 177)를 통해 정부의 개입 아래 원주민들의 커피농장 강제노역을 법제화했다. 특히 원주민 공유지의 몰수는 "한편으로는 커피재배를 위한 대농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커피수확을 위한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32]하려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띠고 있었다. 원주민의 생계 터전을 빼앗아 그들을 주로 오지에 위치한 커피농장으로 몰아넣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커피산업의 성장은 과테말라에서 "앙시앙 레

31) 18세기 중반 예수회 신부들에 의해 처음 도입된 과테말라의 커피재배는 19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식민시대 이 나라의 대표적인 주요 농업수출품은 유럽의 섬유산업 원료로 쓰이던 시킬리테(xiquilite, 인디고)였으며 일부 지주들은 카카오와 사탕수수 등 전통적인 작물을 선호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새로 개발된 화학염료의 등장과 아시아 산(産) 인디고와의 경쟁으로 시킬리테 산업이 위기에 처하자 대안 농업수출품으로 커피에 대한 관심이 늘어갔다. 하지만 커피재배의 조건과 재배방식, 기술 등에 대한 확신부족과 큰 토지와 인력이 요구되는 자본투자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지주들이 많았다. 1840년부터 약 30년간 집권한 라파엘 카레라와 비센테 세르나 등 보수주의 정권은 자금지원과 세금감면을 통해 커피산업 육성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1850년대 이후에는 에스쿠인틀라(Escuintla), 수치테페케스(Suchitepéquez), 과테말라(Guatemala), 사카테페케스(Sacatepéquez), 산 마르코스(San Marcos), 솔롤라(Sololá), 산타 로사(Santa Roas), 치말테낭고(Chimaltenango)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커피산업이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과테말라는 1871년 자유주의 정권 집권 이후 본격적인 '커피공화국'으로 성장하였다. 이 무렵부터 "독일자본이 이끄는 과테말라의 경제세력이 등장했다. 그들은 신식민지 장원경제(latifundismo neocolonial)와 커피 위주의 단일작물 재배를 조성했다." - Lesbia Ortiz Martínez, "Reseña histórica de la producción del café en Guatemala y la migración de trabajadores temporeros agrícolas(1774-2000)", 2017, pp.83-86.

32) José González y Antonio Campos(co-autores), Eduardo Galeano(colaboración), *Guatemala, Un pueblo en lucha,* Madrid: Editorial Revolución, 1983, p.22.

www.kci.go.kr

짐(식민시대)의 착취구조를 재가동"[33]시켰으며 원주민들의 삶은 과거보다도 더욱 피폐해졌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 과정에서 정책의 이론적 근거로 과학적 인종주의 사상을 차용했다.

> '계몽적 자유주의자들(liberales ilustrados, 구자유주의자들)'은 원주민을 진보의 장해로는 간주했으나 그들이 교육과 '근대' 사회로의 통합을 통해 개선되어야만 하고, 또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신자유주의자'들은 원주민들의 특성상 그들이 변화에는 본질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원주민들은 게으르고, 열등하며, 일하기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 식민시대에 상투화되었던 (다음과 같은) 인식이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다.: 원주민들에게는 '문명의 필수요건들'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들 스스로는 그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문명의 필수요건들을 메워주려면, 적어도 그들에게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주려면, 강제로라도 일을 시켜 임금을 쥐어줄 필요가 있다. 원주민들은 자발적으로는 노동시장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34]

이처럼 아스투리아스 류의 과학적 인종주의 담론은 지식인들의 '추상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착취를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 원주민을 열등한 존재로 분류해야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던 자유주의 정치엘리트들에게 사상적,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스투리아스나 1920년 세대 지식인들의 인종담론은 – 설령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 또 다른 비난을 피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

33) Rodolfo Pastor, *Historia mínima de Centroamérica*, Madrid: El Colegio de México – Turner, 2013, p.280.

34) David McCreery, "El café y sus Efectos en la Sociedad Indígena", Jorge Luján Muñoz (Director General), Alberto Herrarte(Director del Tomo), *Historia General de Guatemala, Tomo IV, Desde la República Federal hasta 1898,* Guatemala: Fundación para la Cultura y el Desarrollo, 1995, p.506.

www.kci.go.kr

Ⅲ. 코스타리카 : 과테말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코스타리카 국가정체성 담론의 특수성

아스투리아스와 1920년 세대의 예에서 보듯, 과테말라의 국가정체성 담론 형성 과정에는 당시 과학적 인종주의 사상의 세례를 받은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또한 현실의 사회,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과테말라는 원주민과 흑인인구가 적었던 코스타리카 보다 더욱 강력한 '우생학적 정책들'을 추진했다."[35] 이에 비해 19세기 중반부터 대내외적으로 '열대의 낙원(paraíso)', '중미의 스위스', '문명의 오아시스(oasis de la civilización)' 등 유토피아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온 코스타리카는 외면적으로는 '국가의 백인화'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인구의 대다수가 '이미' 백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인종적 동질성(homogeneidad étnica)'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이 이러한 순항을 가능하게 했던 주요인이었을 것이다.

> 19세기 중반 경, 의심의 여지없이 인종주의적 실증주의(positivismo racialista)의 영향으로, 코스타리카 엘리트들과 중미 엘리트들의 대다수, 그리고 국제적인 맥락에서도, (이 나라가) 동질적이고 문명화된 백인 국가라는 코스타리카 신화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다.[36]

따라서 이 시기 코스타리카 엘리트들은 과테말라처럼 '원주민과 메스티소의 인종적 열등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필요도, 또한 '사회악(원주민 문제)을 완화 또는 근절'하기 위해 고뇌에 찬 방안을 제시할 시급성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이미 자국에는 "극소수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원주민이 존재하지 않는다."[37]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장점을 구비하고 있다."[38]라는 우월의식을 전

35) Marta Elena Casaús Arzú(2014), *op. cit.*, pp.92-93.
36) *Ibid.,* p.90.
37) Chester Urbina Gaitán, "Raza e identidad nacional de Costa Rica en el períodico El Costarricense (1846-1849, 1870 y 1837-1877)",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Vol. IV, Núm.146, Universidad de Costa Rica, 2014, p.162.

www.kci.go.kr

제하고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아스투리아스 류의 화법이 크게 필요치 않았다. 대신, 역사적 전거 속에서 정체성 담론을 합리화하고 이를 세련된 국가 발전 전략으로 조율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 국가정체성 담론화의 이면에는 몇 가지 착시현상이 개재되어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의도적으로 현실을 부정 혹은 외면하는 것이었다.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코스타리카 국가정체성 담론의 형성 과정을 다룬 최근의 한 연구[39]는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나라의 국가정체성 담론은 크게 가난한 변방의 역사가 오히려 민주주의와 평화를 가져다주었다는 소위 '빈곤의 역설론', 독립 이후 객관적인 사회 현실과 무관하게 형성된 '허구적인 백인국가론' 그리고 19세기 후반 커피산업 성장기와 맞물린 '자유주의 국가엘리트들의 정체성 공고화 노력'의 세 가지 요인에 기대어 형성되었다.

2. 코스타리카의 국가정체성 담론 형성 과정

우선 '빈곤의 역설'이다. 이 주장의 논거는 코스타리카가 고대부터 지정학적, 사회경제적으로 줄곧 변방에 머물러 있었다는 역사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코스타리카는 아즈테카, 마야를 중심으로 한 메소아메리카 문화권의 광휘(光輝)에서 벗어나 있었으며,[40]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했던 16세기 초에는 약 40만 명의 원주민들이 주로 태평양 북부(Pacífico norte)와 중앙계곡(Valle Central)지역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었다.[41] 1502년 9월 25일 4차

38) Chester Urbina Gaitán, "Identidad nacional, historia de elite y prensa en Costa Rica. Los funerales de Estado del Lic. Cleto González Víquez y del Lic. Braulio Carrillo Colina(1972)", *Revista de Museología KÓOT*, 2017, Año 7, n.°8, p.6.

39) 전용갑, *op. cit.*, , 159-194쪽. 본인이 수행한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사업의 1년차 성과를 담은 논문임을 밝힌다. 1년차 논문에 서술된 주요 인용문은 -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 가급적 본 논문에서는 각주를 통해 언급하였다.

40) "스페인 사람들의 도착 이전에 코스타리카는 - 비록 니코야(Nicoya, 코스타리카 북서부 지방)가 멕시코 문화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 메소아메리카의 일부를 구성했던 적은 실제로 없었다." - Carlos Cortés, "ÍNSULA RARÍSSIMA(INSULARIDAD, MITOS Y DEMOCRACIA EN COSTA RICA)", *INTI Revista de literatura hispánica*, N° 49-50, 1999, p.250.

41) Iván Molina – Steven Palmer, *Historia de Costa Rica*, San José(Costa Rica): Editorial UCR, 2017, p.12 y p.19.

www.kci.go.kr

항해에서 오늘날의 푸에르토 리몬(Puerto Limón) 앞바다에 도착한 콜럼버스가 이 나라에 '풍요로운 해안(Costa Rica)'이라는 가슴 설레는 지명을 선사했으나 발달한 문명도, 금은(金銀)도 없었기 때문에 정복자들의 관심이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코스타리카는 식민시대 내내 치아파스(멕시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인근 지역들과 함께 '과테말라 군정령(Capitanía General de Guatemala, 1542-1821)'의 일부를 이루었으나 변경적 위치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식민 당국과 분리되어 있었고"[42], 부와 권력을 찾아 대서양을 건너온 백인 식민자(colono)들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원래부터 수가 적었던 코스타리카 원주민들은 – 라틴아메리카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 정복전쟁과 강제노역, 서구인들이 옮겨온 각종 질병(천연두, 티푸스, 홍역 등)으로 인해 1569년 12만 명, 1611년에는 1만 명[43] 그리고 정복 2백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으로 급감하였다.[44] "광물자원의 부재와 원주민 인력의 부족으로 정복자들이 (직접) 농부가 되었으며"[45], 별 다른 잉여생산품도 없었기에 흑인이나 원주민 노예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코스타리카는 일찍이 가족 단위의 소규모 자영농이 위주가 된 "모두가 백인이고 모두가 가난한"[46] 나라가 되어버렸다. '빈곤의 역설론'은 이러한 변방의 과거사가 오히려 독립이후 백인 중심의 인종적 동질성에 근거한 평등과 평화, 공존 등 이 나라 고유의 '시골민주주의(democracia rural)'전통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 (코스타리카의) 이러한 공존(convivencia) 형태는 그 기원을 소규모 자영농에 의해 형성된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평등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원주민 혹은 흑인 노예의 부재에 의해 강화되었다. 처음부터 주인과 노예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노예제도가 부재했기 때문에 순종의 습관이 없었으며, 또한 강요에서 비롯되는 증오도 만들어지지 않았다.[47]

---

42) Carlos Cortés, *op. cit*., p.250.
43) Iván Molina – Steven Palmer, *op. cit*., pp.19-20.
44) Carlos Cortés, *op. cit*., p.250.
45) Erika Gólcher, *op. cit*., p.94.
46) Carlos Sojo, *Igualiticos. La construcción social de la desigualdad en Costa Rica*, San José(Costa Rica): EUNED, 2013, p.17.
47) Juan Bosch, *Costa Rica. Interpretaciones históricas y geográficas*, San José(Costa

www.kci.go.kr

또한 ‘카카오 산업의 실패’와 ‘중미통합운동의 좌절’이라는 두 가지 ‘역설적인 사건’이 이 나라에 ‘역설적인 행운’을 안겨준 분수령이 되었다. 우선, 16세기 후반 카리브 연안 마티나(Matina) 지역을 중심으로 야심차게 시도했던 카카오 플랜테이션 산업이 원주민과 영국, 네덜란드 해적의 공격으로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예주의자와 대지주계급의 형성 – 즉, 베네수엘라 화(化) -을 막았다.[48] 그리고 독립 이후 중미연방공화국의 해체와 재통합 시도의 좌절은 코스타리카의 ‘과테말라 화’를 방지했다. 이 나라가 ‘전횡적이고 광신적인’ 과테말라 대지주들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49]

Rica): Librería Francesa, 2006, p.43.

48) “애초부터 카카오 산업은 나쁜 비즈니스였다. 판매 시장이 니카라과에 있었는데 그곳으로 카카오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멀고도 험한 길을 거쳐야 했으며, 따라서 운송비용이 이익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카카오는 계속 재배되었으며 생산지였던 마티나 주위에서는 노예들을 고용하는 대지주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 만일 마티나에서 시작된 이 산업이 성공했었더라면, 코스타리카의 역사는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다. 〔…〕 만일 마티나의 카카오 생산자들이 모기떼처럼 달려드는 원주민들과 영국, 네덜란드 해적의 공격에 시달리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오늘날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 만일 마티나의 카카오 농장들에 큰 행운이 따랐더라면, 코스타리카는 약 50년 사이에 대지주 계급이 형성되었던 베네수엘라와 유사한 길을 밟았을 것이다. 〔…〕 18세기 중반 베네수엘라의 지주그룹과 노예주의자들은 식민지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들의 지배는 소수와 수많은 대중 사이에 폭력적인 관계를 초래하였다.”- *Ibid.*, pp.43-45.

49) “코스타리카는 두 번의 독립을 거쳤다. 하나는 순전히 정치적인 독립이다. 이베리아 군주제에서 벗어난 독립국으로서, 스페인과의 정치적 관계를 완전히 중단시킨 것을 독립이라 부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과테말라와의 정치적, 경제적 분리인데, 이것이 코스타리카의 진정한 독립을 의미한다. 〔…〕 물론 옛 과테말라 왕국이 오늘날 중미의 통합공화국을 이루지 못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역사를 바라보는 현실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코스타리카가 다른 중미국가들과의 연관성을 깼기에 수월하게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야만 한다. 〔…〕 과테말라와의 단절은 코스타리카에게는 매우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 코스타리카는 영토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과테말라의 소유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타리카 주는 정치적으로 과테말라에 종속되어 있었고, 경제는 연방 수도(과테말라)의 노예주의자 대지주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었다. 과테말라는 노예주의자 대지주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는데, 그들은 전횡적이고 광신적인 권력에 기반을 둔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지배그룹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나라 역사에 긴장을 조성한 소수의

www.kci.go.kr

이러한 '빈곤의 역설론'은 그 외적인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논리의 큰 틀 -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사각지대였으며 식민시대에도 과테말라 군정령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었다는 점, (19세기 후반기 커피산업의 발달 이전까지는) 국가를 좌우할만한 정치, 경제적인 과두지배세력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 등 - 에서는 비교적 역사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그러나 '가난한 백인들이 모여 살던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이 주장의 핵심에는 뿌리 깊은 인종주의 사상이 개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의 지적처럼 합리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 코스타리카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대해 전통적으로 제기되어 온 일부 단언적인 주장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식민시대 코스타리카는 가장 가난했던 주(provincia)였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굶어죽지 않기 위해 직접 경작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것이 '계급(casta)도 노예제도도 없는' 사회적 평등을 야기했다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점이 소위 '시골민주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democracia social)' - 역사학자 아길라르 불가레이(Aguilar Bulgarelli)가 '낭만적인 민주주의(democracia romántica)'라고 명명한 - 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감성적이며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것이다.[50]

사실 코스타리카에서도 "식민시대 기간 동안, 대륙의 다른 지역처럼 두드러지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분명 계급의 차이가 존재"[51]하고 있었으며, 비록 "노예제도가 경제의 주된 동력이 아니었고 또 다른 형태의 노동으로 간주되었으나, 코스타리카는 노예가 존재하는 사회(Costa Rica fue una sociedad con esclavos)"[52]였던 것도 분명하다.

과두지배그룹이었다. 과테말라에서 행해진 일들은 연방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코스타리카는 연방의 가장 허약한 일원이었다." -*Ibid.*, pp.49-50.

50) José R. Corrales, "La esclavitud en Cartago 1750-1775", *9° Congreso Centroamericano de Historia*, Universidad de Costa Rica, 2008, pp.793-794.

51) *Ibid.,* p.794.

52) María de los Ángeles Acuña León, "Mujeres esclavas en la Costa Rica del siglo XVIII: Estrategias frente a la esclavitud", *Diálogos Revista Electrónica de Historia,* Vol.5, Núm.1-2, abril-agosto, Universidad de Costa Rica, 2005, p.2.

www.kci.go.kr

1935년 마리오 산초 히메네스는 코스타리카 국가정체성의 허구성을 폭로한『중미의 스위스, 코스타리카』에서 이러한 안일한 역사관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평화와 평등, 공존, 민주주의 등 아름다운 수식어로 치장된 이 나라의 역사는 실은 비겁함과 무관심의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 이 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코스타리카인들은 절대로 종교 이외의 다른 일에는 열정을 쏟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적인 이해관계 이외의 다른 일에는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무능력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비참했던 중미의 다른 민중들이 독립을 위해 용감하게 싸울 때 왜 코스타리카에서는 스페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는지를, 그리고 왜 이곳에서는 희생이 따르는 위대한 사상들이 항상 좌절되어 왔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53]

결론적으로, 코스타리카는 – 과테말라와 비교하여 – 과거사 인식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아스투리아스 등 과테말라의 지식인들은 원주민 인구의 비율이 높은 자국의 역사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이다. 즉, 그들은 마야 문명의 우수성을 인정하지만 '회생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며, 식민시대는 원주민들의 돌이킬 수 없는 인종적 퇴행을 초래했다고 인식한다. 반면, 코스타리카인들의 역사관은 긍정적인 수준을 넘어 목가적이기까지 하다. 그들의 역사담론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사회악'인 원주민의 존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별 볼일 없던 소수의 원주민들은 정복과 식민시대 초기에 일찌감치 절멸되었으며, 백인만 남게 된 변방의 역사가 오히려 평화와 평등, 민주주의의 자양이 되었고 판단한다.[54] 둘 모두 인종주의적 편견에 기저를 두고 있으나, 후안 보쉬(Juan Bosch)의 지적처럼 코스타리카의 긍정적인 역사는 이 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카의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53) Mario Sancho, *Costa Rica, Suiza centroamericana*, en *Costa Rica: Dos visiones críticas*, San José(Costa Rica): EUNED, 2009, p.18.

54) 이와 관련하여 스티븐 팔머(Steven Palmer)는 "과테말라인들은 국가의 근대화를 통해 식민유산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코스타리카인들은 식민유산이 의도치 않게 자신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한다."라고 언급한다. - Steven Palmer, "Racismo intelectual en Costa Rica y Guatemala, 1870-1920", *Mesoamérica*, 31, junio de 1996, p.114.

www.kci.go.kr

덜 폭력적이어서라기 보다는, 더 정당화된 폭력을 사용했기에"[55]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 코스타리카 국가정체성의 핵심을 차지하는 '백인국가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립 직후 제기된 이 주장은 사실 "역사적 가능성, 명확한 증거와는 전혀 무관"[56]한 것이다. 일단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식민시대 말기인 18~19세기 전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라 인구가 백인위주로 구성되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1801년의 한 통계는 이 나라가 58%의 메스티소, 16%의 물라토, 16%의 원주민 그리고 9%의 스페인인과 1%의 흑인으로 구성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57] - 통계의 세부적인 정확성은 차치하고라도 - 코스타리카 주민들의 인종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당시 매우 일반적인 것이었다.

> 18세기 코스타리카의 인구조사에서 메스티소의 비율이 높다는 인식이 일반화된 견해였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 18세기까지 식민시대 내내 거의 모든 역사와 지리학 자료들은 코스타리카의 인종구성에서 메스티소가 다수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58]

소토 키로스(Soto Quirós) 역시 식민시대 코스타리카는 스페인인, 메스티소, 물라토, 원주민, 삼보, 네그로 등 "다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59]고 단언한다. 하지만 "1830년대 무렵, 코스타리카 인종구성에서 메스티소와 물라토가 주요한 그룹이었다는 이러한 자료들은 (갑자기) 사라지고"[60] 외국인

---

55) Juan Bosch, *op. cit.*, p.34.

56) Carlos Sojo, *op. cit.*, p.6.

57) Ronald Soto Quirós, "Imaginando una nación de raza blanca en Costa Rica: 1821-1914", *Amérique Latine Histoire et Mémoire*, 15, 2008: Etat et Nation I (19e siècle), p. 3 (인터넷 출력물 기준 쪽수)

58) Marta Elena Casaús Arzú(2014), *op. cit.,* p.90.

59) Ronald Soto Quirós, *op. cit.*, p.3.

60) *Ibid.,* p. 4. 스티븐 팔머(1996)도 그때까지 코스타리카의 인종적 다양성을 보여주던 자료들이 이 무렵 갑자기 사라진 점에 대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Por razones que no han sido bien estudiado)"고 말한다. 그는, 아마도 이러한 현상이 – 부분적으로는 - 원주민이 적었던 중앙계곡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들의 연대기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이 무렵부터 메스티소와

www.kci.go.kr

들과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 백인국가론이 급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 19세기에, 특히 1830년 이후, 백색 코스타리카가 새롭게 구성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외국인) 여행자들과 과학자들의 이야기의 산물이었으나, 또한 코스타리카 지식인들도 주민의 대다수가 백인이라는 점을 고안해 내기 시작했다. (예컨대) 후안 갈린도(Juan Galindo)는 (1836년) 런던『왕립지리학회지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에 코스타리카가 다수의 백인(125.000명)과 약 25.000명의 원주민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메스티소는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백색의 상상체는 이 지식인에서 저 지식인으로 전파되어갔으며, '국가의 백인화'에 동조하는 일련의 담론들이 추가되어 갔다.[61]

스페인으로부터 정치적 독립(1821)을 이룬 직후 생성, 유포되기 시작한 '백인국가론'은 - 인종구성에 대한 수치는 조금씩 다르나 – 대개 코스타리카의 주민 대다수가 백인이며, 따라서 '근면, 검소하고, 평화롭고, 민주적이라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62]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모호함에도 불구

스페인계 주민을 모두 '백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지칭하기 시작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지적한다. - Steven Palmer(1996), *op. cit*., pp.116-117.

61) Marta Elena Casaús Arzú(2014), *op. cit.,* p. 90.

62) "몬투파르 이 코로나도(Montúfar y Coronado)는 1832년 독립직후 옛 과테말라 왕국 (Reino de Guatemala)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묘사에서 "코스타리카에는 혼혈이 적다. 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인인 야코보 하에프켄스(Jacobo Haefkens) 역시 "코스타리카는 백인이 훨씬 더 많은 데 반해, (중미연방) 공화국의 다른 세 나라에는 메스티소가 다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프랑스 전함 함장이었던 모시용 드 캉데(Maussion de Candé)는 코스타리카 전체 인구 15만 명 중 12만 5천 명이 백인이라는 후안 갈린도의 통계를 반복하면서 "코스타리카는 (중미) 5개 국가 중 인구가 가장 적지만, 가장 질서 있고 평온하다. 〔…〕 이 점은 물라토가 부재하며 주민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백인들이라는 점에 의해 쉽게 이해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1844년 코스타리카를 여행한 스코틀랜드인 던롭(Robert Glasgow Dunlop)은 중미의 인종구성이 스페인계 백인, 메스티소, 물라토, 삼보, 원주민, 아프리카계 흑인 등 여섯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코스타리카를 제외하면" 메스티소와 원주민이 다수라고 언급하며, 코스타리카에 대해서는 "코스타리카의 주민들은, 원주민과 혼혈을 이룬 스페인어권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거의 모두가 백인이다. 소수의 유색인들은 틀림없이 인접 국가들에서 온 사람들이다. 코스타리카인들의 기질은 중앙아메리카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는 매우 다르다. 그들은 비록

www.kci.go.kr

하고 19세기 중반 이후 다양한 목적으로 이 나라를 찾은 서구의 사업가, 과학자, 언론인, 여행자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많은 기록을 남기며 신화의 '세계적인 확산'을 부추겼으며, 급기야는 코스타리카를 '낙원'이나 '스위스'에 비유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63]

거친 일을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가정마다 커피농장 혹은 사탕수수 농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면하다."는 내용의 기록을 남긴다."
한편, "그 누구보다도 코스타리카 '백인 신화'의 유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은 이 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전도사(propagandista)'로 간주되는 펠리페 몰리나 베도야(Felipe Molina Bedoya)이다. 과테말라 출신의 코스타리카 외교관인 그는 1849년 런던에서 『코스타리카 공화국의 간략한 스케치 *A brief Sketch of the republic of Costa Rica*』라는 단행본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몰리나 베도야는 코스타리카의 인구를 약 10만 명으로 집계하며 이중 9만이 백인이고 1만이 원주민이며, 흑인은 아예 없고, 약간의 물라토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코스타리카인들이 "전반적으로 근면하고, 능동적이며, 검소하고, 평화적이며, 외국인들에게 친절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그는 같은 해 파리에서 발행된 소책자 『코스타리카 공화국에 대한 간략한 소묘 *Coup d'oeil rapide sur la république de Costa Rica*』에서 코스타리카에 발을 디딘 "최초의 스페인 식민자들(colonos)은 갈리시아 지방 출신들이며 이러한 출신 배경이 현재 코스타리카 주민들의 두드러진 특성인 근면하고 검소한 기질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인들의 '갈리시아 기원설'은 저자 스스로도 "아직 더 연구해야 하는 가설"이라며 확답을 유보하지만 이후의 다른 문헌들에서 큰 문제의식 없이 인용, 재생산된다. 유명세를 타게 된 몰리나 베도야의 책 스페인어판 (『코스타리카에 대한 소묘 *Bosquejo de la República de Costa Rica*』)은 1862년 코스타리카 역사 교육을 위한 교재로 활용되어 '국가교육의 공식적인 버전'으로 격상되었으며, 그의 저작들은 "19세기 중반이후 코스타리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이 지역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필독서가 되었다."- Ronald Soto Quirós, *op. cit*., pp.4-7의 내용을 전용갑, *op. cit*., 178-180쪽에서 정리, 인용한 것임.

63) "1858년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를 포함하는 운하 건설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위해 코스타리카를 처음으로 찾은 프랑스 신문기자 펠릭스 벨리(Félix Belly)는 코스타리카인들의 기질에서 '기독교 문명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지상의 낙원(paraíso terrestre)'의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보기에) 프랑스나 스위스 등 그 어떤 사회도 "노동과 가족에 대한 사랑, 법률에 대한 존중, 관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차분한 위엄을 보여주는 예의범절"을 지닌 코스타리카인들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 같은 시기 미국에서 위대한 여정을 거친 아일랜드인 토마스 프랜시스 마허(Thomas Francis Meagher)가 이 나라를 찾았다. 〔…〕 그는 코스타리카를 '신대륙의 스위스(la Suiza del Nuevo Mundo)'라고 칭하며 코스타리카인들을 "예의바르고 검소하며, 근면하고 수수하다. 그들 사이에 완벽한 평화가 있고, 신앙과 가족에 매우 충실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스위스에 대한 비교는 이들에게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 마허는 그의 유명한 저

www.kci.go.kr

그러나 주로 외국인 방문자들이 채록, 유포한 기록의 모호하고 주관적인 성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그들의 언급에는 '백인 개념의 모호함'과 코스타리카 전역을 둘러보지 못한 '경험적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실, 외국인들은 코스타리카 주민들을 백인(blanco)으로 묘사하고는 있으나 유럽과는 다른 '그을린 백인(blanco atezado)', '독특한 백인(blanco peculiar)', 심지어는 '창백한(anémico) 원주민' 등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64] 서구의 백인들(외국인 방문자들)이 자신들과 유사하면서도 독특하다고 표현하는 이러한 모습은 혼혈이 남긴 흔적 이외에 다름 아닐 것이다. 게다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메스티소, 물라토 혹은 스페인인으로 불분명하게 명기되거나 〔…〕 한 동일한 개인이 일생의 여러 단계(세례, 결혼 등)에서 서로 다른 인종그룹으로 분류된 사례"[65]들도 드물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당시의 인종분류가 지극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인들의 '경험적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당시 그들은 산호세나 카르타고 등 주로 백인들이 모여 사는 '중앙계곡' 지역만을 방문했을 뿐, 원주민이나 물라토들이 다수인 카리브 연안이나 북부 태평양 연안까지 발품을 파는 경우는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66] 하지만 이와 같은 세세한 정

작인 『코스타리카에서의 휴일 *Holiday in Costa Rica*』에서도 '열대의 스위스(Suiza de los trópicos)'라는 자신의 인상을 반복해서 설파했다." - Ronald Soto Quirós, p.10의 내용을 전용갑, 180쪽에서 인용한 것임.

64) 예컨대, 1860년 영국의 안소니 트롤롭(Anthony Trollope)은 코스타리카를 돌아본 후 남긴 기록에서 이 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스페인 기원이지만, 정확하게 '순수한 스페인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백인이지만 매우 그을린(muy atezado)" 백인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또한 19세기 중반 독일의 탐험가인 빌헬름 마르(Wilhelm Maar)도 "티코(코스타리카인)의 '하얀 것'은 독특하다."고 말하며 후안 라파엘 모라(Juan Rafael Mora) 대통령의 동생이자 코스타리카 군 사령관인 호세 호아킨 모라(José Joaquín Mora)를 "연미복을 입은 창백한(anémico) 원주민 족장(cacique)"으로 묘사하고 있다. - Ronald Soto Quirós, p.11., Carlos Sojo, pp. 6-7의 내용을 전용갑(2019), 187쪽에서 인용한 것임.

65) Carlos Sojo, *op. cit*., p. 9.

66) "외국인 방문자들은 중앙계곡 지역에 원주민 인구가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점과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세밀한 인종 구분이 부재하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확실한 것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메스티소 주민과 스페인계 주민을 (모두) '백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지칭했다는 점이다. 〔…〕 동질적인 인종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으려는 그룹들 – 구아나카스테 지방의 다수를 이루는 원주민 그룹, 영어

www.kci.go.kr

황들은 당시 뜨거웠던 '백인신화'의 열기에 묻혀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67]

'중미의 스위스'로 대변되는 코스타리카의 '백인국가론'은 분명 원주민 인구의 비율이 높은 과테말라와 인근 중미국가들에서는 불가능한 이 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었다. 하지만 담론의 형성과 확산과정에서 외국인들의 비과학적, 자의적인 '인상기'들이 큰 역할을 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오늘날 코스타리카 인구의 평균적인 유전형질(genotipo promedio)이 61%의 백인유전자(genes caucásticos), 30%의 원주민 유전자(amerindios), 9%의 아프리카 흑인 유전자(africanos)의 혼합(cóctel)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현대의 과학적 연구결과가 보여주듯[68], 이 나라는 사실상 여러 인종의 피가 섞인 혼혈국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신화의 확산에는 독립 이후 중미통합 대공화국을 염원했던 과테말라와는 달리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국가건설을 추구했던 코스타리카 인들의 정치적 염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내전과 폭력으로 점철된 주변국들과는 다른 '예외적인 경험'을 원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정체성 담론을 체계화, 정책화한 '올림포스 세대' 지식인과 정치인들의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스타리카의 올림포스 세대는 대략 1850~60년대 태어나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자유주의 개혁' 시기를 이끈 일군의 작가, 예술가, 학자, 정치인 등 국가엘리트들이었다. 이

식 언어를 사용하는 리몬 지방의 흑인들 – 은 지리적, 인구학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공화국의 외진 지역에 살고 있었다." - Steven Palmer(1996), *op. cit.,* p.117.

67) "코스타리카 국가정체성의 또 다른 본질적인 특징은 맹목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일련의 조작된 허구를 열정적으로 수용하려는, 그 완고한 집착에 있다. 구아나카스테 지방 사람들은 메스티소와 물라토들이며 문화적으로도 중앙계곡의 코스타리카인들과는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도 프란시스코 몬테로 바란테스(Francisco Montero Barrantes)가 자신의『코스타리카의 지리적 요소들 *Elementos de geografía de Costa Rica*』에서 그들을 인종적으로 거의 백인인 티코(tico, 코스타리카인)에 포함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게다가, 코스타리카는 그 자체가, 유나이티드 프루트 사의 출생지인 최초의 바나나공화국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도 코스타리카의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재차 코스타리카는 바나나공화국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Steven Palmer – Iván Molina, "Boronas de identidad nacional", *Tópicos del humanismo,* n.113, diciembre 2004, Heredia(Costa Rica) : Universidad Nacional. p.3. (인터넷 출력물 기준)

68) Carlos Sojo, *op. cit*., p. 7.

www.kci.go.kr

들 역시 당대의 자유주의와 실증주의의 이념적 세례를 받았다는 점에서 과테말라의 '1920년 세대'에 비견할 수 있다. 우선, 마누엘 데 헤수스 히메네스(Manuel de Jesús Jiménez), 마누엘 아르구에요 모라(Manuel Argüello Mora), 헤나로 카르도나(Jenaro Cardona), 카를로스 가히리(Carlos Gagiri), 마누엘 곤살레스 셀레돈(Manuel González Zeledón), 아킬레오 J. 에체베리아(Aquileo J. Echeverría) 등 올림포스 세대 작가들은 당시 "과두지배 자유주의(liberalismo oligárquico)의 기치 하에 시작된 국가주의적 프로젝트에 화답하는 국가문학 모델을 만들어냈다."[69]

> 19세기 후반 소위 올림포스 세대는 – 페르난데스 구아르디아(Fernández Guardia)와 같이 잘 알려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 국가적인 가치를 고양하는 정체성 담론 형성에 참여했다. 그들은 예술의 대상과 주제로서 코스타리카 현실의 요소들을 차용했다. 목가적인 과거에 대한 향수로 코스타리카를 평화와 민주주의의 오아시스로서 정의했다. 〔…〕 에덴적인 것(lo edénico)과 목가적인 것에 대한 신념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코스타리카의 올림포스 세대는 사람들이 순수하고 선량했던 전원적인 시절을 그리워하는, 인류의 잃어버린 순수성을 추구하는 미학적, 철학적인 전통 – 플라톤과 베르길리우스로부터 에라스무스와 괴테까지 – 에 속해있다고 볼 수 있다.[70]

한편, 1880년대 중반부터 자유주의 정치인들은 "향후 60년간 정치적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된 (이와 같은) 담론의 이미지(imágenes discursivas)에 근거하여"[71] 국가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려 시도했다.[72] 그들은 17세

---

69) Shirley Montero Rodríguez, "La deconstrucción del mito edénico y el discurso de la identidad nacional, en Tanda de cuatro con Laura de Carlos Cortés", *Revista Comunicación*, Vol.22, año 34, No.2, julio-Diciembre, 2013, p.16.

70) Melvin Campos Ocampo, "La transformación de una identidad o cómo lanzar una vaca del Olimpo", *Káñina, Rev. Artes y Letras*, XXX(2), Universidad Costa Rica, 2006, pp.92-93.

71) Chester Urbina Gaitán(2017), *op. cit*., p. 11.

72) "19세기 후반 토마스 구아르디아 구티에레스(Tomás Guardia Gutiérrez, 1870-1882 집권), 프로스페로 페르난데스 오레아무노(Próspero Fernández Oreamuno, 1882-1885 집권), 베르나르도 소토 알파로(Bernardo Soto Alfaro, 1885-1889 집권)정부가

www.kci.go.kr

기 카르타고에서 발현한 것으로 알려진 '로스 앙헬레스 성모(Virgen de los Ángeles)'숭배를 강조[73]하고, 미국 출신의 '19세기 해적(filibustero)'으로 불리는 윌리엄 워커(William Walker)의 침공(1856-1857) 당시 장렬히 전사한 하층민 출신 병사 후안 산타마리아(Juan Santamaría)를 뒤늦게(1891) 발굴하여 '국가적 영웅'으로 추대하는 등 상징화 작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시기 '백인중심'의 국가정체성을 구현하려는 정치적 노력은 '사회적 위생'과 '자체이민(auto-inmigración)'으로 대변되는 현실 정책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코스타리카의 공공위생과 보건은 19세기 마지막 시기에 일어난 가장 의미 있는 사회-역사적 변화 중 하나로 평가"[74]될 만큼 '자유주의 개혁'의 중요한 의제였다. 독립 이후 주로 교회와 자선단체들이 담당해 오던 사회적 위생은 이 시기부터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성병예방, 구충퇴치, 모자(母子)보건, 학교위생 등을 전담하는 개별부서들을 만들어나갔으며, 분산된 조직을 모아 1927년에 보건부(Secretaría de Salubridad Pública y Protección Social)로 통합, 승격시켰다.[75]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이면에는 인종주의 사고가 도사리고 있었다. 즉, 이 시기 코스타리카는 플랜테이션 커피 산업의 성장[76], 유나이티드 프루트(United Fruits)사의 진출과 확장, 1870~1890년 사이 철도 건설 등으로 인근 카리브 지역의

본격화하기 시작한 자유주의 개혁정책은 20세기 들어 '올림포스 세대'에 속하는 클레토 곤살레스 비케스(Cleto González Víquez, 1906-1910, 1928-1932 집권), 리카르도 히메네스 오레아무노(Ricardo Jiménez Oreamuno, 1910-1914, 1924-1928, 1932-1936 집권), 홀리오 아코스타 가르시아(Julio Acosta García, 1920-1924 집권) 정부 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정책을 통해 애국주의와 자본주의, 인종적 순수성 등 정체성의 핵심적 가치를 공고하게 구축했다." - 전용갑, *op. cit.*, 163쪽.

73) 로스앙헬레스 성모 숭배는 자유주의자들이 집권한 1880년대 이후 확대되기 시작했다. - Iván Molina – Steven Palmer, *op. cit.*, p.70.

74) Javier Rodríguez Sancho, "El estado en Costa Rica, la iniciativa pública y privada frente al problema de la pobreza urbana. San José(1890-1930)", *Anuario de Estudios Centroamericanos,* 26(1-2), Universidad de Costa Rica, 2000, p.68.

75) Xinia Bustamante C.(ed.), *100 años de salud – Costa Rica: Siglo XX*, San José (Costa Rica): Organización Panamericana de la Salud, 2003, pp.9-11.

76) 커피는 1850-1890년 사이 코스타리카 전체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였다. Iván Molina – Steven Palmer, *op. cit.*, p.77.

www.kci.go.kr

흑인들을 비롯한 원주민, 중국인 등 소위 '열등한 인종'의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었는데, 위생문제에는 자국의 '백인' 인구를 늘려 이들의 유입을 가급적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우생학적' 취지가 담겨 있었다.

> 건강과 위생의 강조는 인구가 적은 나라(코스타리카)의 높은 유아사망률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근심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 인구 부족은 인종적으로 달갑지 않은 이들, 특히 아프리카계 카리브인들(afrocaribeños)의 노동력 수입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진보된 사회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정책(코스타리카의 위생 정책)의 기원은, 따라서, 인종적으로 백인인 국가 정체성 확립과 밀접하게 관련된 위생학적인 동기를 지니고 있었다.[77]

'자체 이민'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올림포스 세대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인 클레토 곤살레스 비케스 대통령은 1908년 의회연설에서 유휴지를 개발하기 위해 외국인을 수용하는 대신 '자체이민'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자체이민은 "코스타리카에서 유아사망률의 감소, 그리고 윤리적, 생물학적 위생 방안들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의 생산력 및 재생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78]위한 것이다.

'사회적 위생'과 '자체이민'은 모두 자유주의 정부가 추진했던 유럽계 백인 이민 수용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 커피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코스타리카 정부는 외국인(유럽의 백인) 이민을 장려했다. 일군의 독일인, 영국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스페인인, 벨기에인 등 (유럽출신) 이민자들이 커피산업의 팽창이 낳은 부에 대한 기대를 안고 도착했다. 그러나 〔…〕 그들은 임금농업노동자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커피산업 구조에서 가장 이윤이 남는 영역들(상업화)을 장악했으며 〔…〕 그 중 일부는 소수의 커피엘리트 집단에 편입했다. 이민은 제한적(selectiva)이었으며, 오랫동안 "코스타리카 인종을 퇴행시키지 않기 위해" 안티야스 제도 출신들과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러한 이민 정책의 실패는 자유주의 정부들에게 주로 (백인들이 많이 사는) 중

77) *Ibid*., p.90.
78) Ronald Soto Quirós, *op. cit*., p.21.

www.kci.go.kr

> 앙계곡 지역을 중심으로 유아사망률 감소와 코스타리카인들의 평균수명 증대를 위한 위생과 공공보건을 추진하게끔 했다. '자체이민'도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자유주의 개혁가들의 주장의 일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79]

코스타리카 자유주의자들의 현실 정책 역시 인종주의 사고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과테말라와 같으나, 대상과 추진 방향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아스투리아스의 글에서 볼 수 있듯, 위생과 이민은 과테말라에서 '사회악(원주민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즉, '위생'은 열등한 인종인 원주민의 퇴행을 가급적 지연시키려는 '완화책'의 일환이었으며, (북유럽, 독일계) 이민은 '새로운 피'의 수혈을 통해 원주민을 인종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근본책'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코스타리카의 경우는 달랐다. 코스타리카의 자유주의자들은 이미 백인 위주의 '인종적 순수성'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다른 "중미인들과는 다르다는 우월감을 느끼고"[80] 있었다. 때문에 이 나라의 '위생문제'에서 원주민이나 흑인, 물라토 등 소위 '열등인종'은 애초부터 배제되었으며 주로 중앙계곡 지역에 밀집해 살던 백인들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민' 정책 역시 우수한 인종의 피를 수혈하여 인종을 '개량'하려는 취지에서가 아니라, 자국의 백인인구를 '보존', '증가'시킴으로써 열등한 인종의 유입을 저지하려는 또 다른 의미의 우생학적, 인종주의적 동기를 띠고 있었다.

Ⅳ. 맺는 말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는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자유주의 개혁시기 '국가의 백인화'를 정체성의 핵심적인 화두로 설정했다. 이는 인접한 멕시코와는 달리 두 나라에서는 식민시대 이후 원주민이 단 한 번도 사회 주체세력으로 부상한 적이 없다는 역사적 경험을 반증하는 것이다.[81]

---

79) Andrea M. Montero Mora, "Una aproximación a los cambios en el paisaje en el Valle Central de Costa Rica(1820-1900)", *HALAC. Belo Horizonte,* volumen III, número 2, marzo-agosto 2014, pp.293-294.

80) Erika Gólcher, *op. cit.*, p.95.

81) 김윤경(2009)은 멕시코 혁명과정에서 주체세력으로 힘을 과시한 원주민에 대한

www.kci.go.kr

양국의 국가정체성 담론은 우생학과 사회진화론 등 당대의 과학적 인종주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었으나 세부적인 논리전개에는 차이가 있었다. 즉, 중미에서 원주민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과테말라에서는 원주민을 국가발전에 저해가 되는 근본적인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자체적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한 열등인종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주력하였다. 반면, 이미 백인국가를 자처하던 코스타리카는 원주민과 메스티소, 흑인, 물라토 등 소위 열등인종들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거나 '비가시화((invisibilizar) 하면서 일부지역(중앙계곡) 중심으로 형성된 '중미의 스위스' 신화를 국가 전체의 이미지로 확대하려 시도했다. 이러한 '국가의 백인화' 담론은 – 다른 한편으로는 - 당시 커피산업의 성장에 기댄 자유주의자들의 국가발전 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즉, 인종주의 사상이 자본주의 논리와 결합하여 열등인종의 착취를 정당화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원주민 인구가 압도적인 과테말라에서 더욱 첨예하게 표출되었다.

한편, 배타적인 국가정체성 담론은 객관적 현실과 유리된 상반되고 아이러니한 역사인식을 낳았다. 과테말라는 찬란했던 원주민 문명(마야)을 회복불가능한 것으로, 군정령의 중심이었던 정복과 식민시대를 원주민의 인종적, 사회적 퇴행을 초래한 시기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코스타리카는 역으로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사각지대였으며 식민시대 내내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자국의 '변방사'를 민주주의와 평화를 가져다 준 역설적인 축복으로 인식했다. 또한 '백인화' 담론의 우생학적 속성은 '위생'과 '이민' 등 사회정

'새로운 발견'이 메스티소가 멕시코 국가정체성의 핵심으로 부각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멕시코 혁명으로 원주민들의 힘이 새삼 부각되었고, 혁명정부는 원주민을 새로이 '발견'하게 되었다. 혁명정부는 원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창출하려고 했던 혁명정부는 이러한 원주민의 집단적인 힘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권한 혁명세력은 우선 백인도 원주민도 아닌 메스티소를 '하나로 통합된 국가 멕시코'의 전형적인 국민상으로 제시하면서, '진정한 멕시코인'을 찬양했다.

- 김윤경, 「1920년대 멕시코의 메스띠소화(mestizaje) 담론의 의미: 탈원주민화」, 『이베로아메리카연구』(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Vol.20, No.2, 2009, p.85.

www.kci.go.kr

책의 논거로 연계되었으나 그 대상과 추진방향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과테말라의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은 '위생'을 사회악(원주민문제)을 지연시키기 위한 완화책으로 제시한 반면, 코스타리카에서는 백인인구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현실에서 구현되었다. '이민' 역시 전자에서는 원주민의 인종적 열등함을 '개량'하기 위한 '새로운 피'의 수혈 차원에서, 후자에서는 자국의 백인인구를 늘려 열등인종의 역할을 '대체'하자는 '자체 이민'의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 모두 '국가의 백인화'를 추구했으나 그 이면에는 양국의 사회, 역사적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었다.

백인중심 국가정체성 담론은 의사과학적(pseudo-científico) 인종주의의 사상이 쇠락하고, 커피 산업에 기반한 두 나라의 사회, 경제적 모순이 심화되던 1930~40년대를 전후해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과테말라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의 집권을 끝낸 '10년의 민주화(Diez años de democracia, 1944-1954)' 기간 동안 혁명파 지식인들에 의해 원주민의 언어와 문화, 전통을 존중하자는 '다문화 국가(nación multicultural)'론이 부상했으며, 코스타리카에서는 1935년 『중미의 스위스, 코스타리카』를 펴낸 마리오 산초 히메네스를 필두로 욜란다 오레아무노(Yolanda Oreamuno), 아벨라르도 보니야(Abelardo Bonilla), 마리오 알베르또 히메네스(Mario Alberto Jiménez), 루이스 바라오나 히메네스(Luis Barahona Jiménez) 등 새로운 세대의 지식인들이 '중미의 스위스'론은 소수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자각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백 년 전 자유주의자들이 구축하려 시도한 '상상의 공동체'가 단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원주민과 메스티소, 물라토 등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소위 '열등인종'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은 – 인종주의가 국가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던 군사독재 정권 시기(1954-1985) 과테말라의 사례가 보여주듯 - 그 이후에도 공산주의자, 게릴라, 농민, 노동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탄압과 차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윤경,「1920년대 멕시코의 메스띠소화(mestizaje) 담론의 의미: 탈원주민화」,『이베로아메리카연구』(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Vol.20, No.2, 2009, 81-119쪽.

나인호,『증오하는 인간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9.

전용갑,「중앙아메리카 근대사상 연구: '중미의 스위스 코스타리카', 만들어진 신화」,『세계문학비교연구』, 67집, 세계문학비교학회, 2019, 159-194쪽.

최진숙,「과테말라에서의 "인종"(race) 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라틴아메리카연구』, Vol.20, No.3, 2007.09, 173-195쪽.

Acuña León, María de los Ángeles, "Mujeres esclavas en la Costa Rica del siglo XVIII: Estrategias frente a la esclavitud", *Diálogos Revista Electrónica de Historia*, Vol.5, Núm.1-2, abril-agosto, Universidad de Costa Rica, 2005, pp.1-21. http://www.redalyc.org/pdf/439/43926968001.pdf. (검색일: 2019.07.25.)

Asturias, Miguel Ángel, *Sociología guatemalteca: el problema social del indio*, 1923, http://biblioteca.usac.edu.gt/tesis/04/04_0940.pdf.(검색일: 2019.07.08.)

Batres Villagrán, Ariel(Entrevistado) y Aqueche, Emi(Entrevistadora), *Apuntes para entrevista sobre Miguel Ángel Asturias: a 70 años de 'El Señor Presidente'*, Guatemala, 4 de septiembre de 2016, pp.7-29. https://www.monografias.com/docs110/apuntes-entrevista-miguel-angel-asturias-70-anos-a-el-senor-presidentea/apuntes-entrevista-miguel-angel-asturias-70-anos-a-el-senor-presidentea2.shtml.(검색일: 2019.07.20.)

Bellini, Giuseppe, "Dimensión mítica del indigenismo en Miguel Ángel Asturias", *Philologia hispalensis*, N°4(1), Universidad de Sevilla, pp.107-116.http://institucional.us.es/revistas/philologia/4_1/art_9.pdf., pp.107-115.(검색일: 2019.07.04.)

www.kci.go.kr

Bosch, Juan, *Costa Rica. Interpretaciones históricas y geográficas*, San José (Costa Rica): Librería Francesa, 2006.

Bustamante C. Xinia(ed.), *100 años de salud – Costa Rica: Siglo XX*, San José (Costa Rica): Organización Panamericana de la Salud, 2003. https://www.bvs.sa.cr/php/situacion/100salud.pdf.(검색일: 2019.07.25.)

Campos Ocampo, Melvin, "La transformación de una identidad o cómo lanzar una vaca del Olimpo", *Káñina, Rev. Artes y Letras*, XXX(2), Universidad Costa Rica, 2006, pp.91-101.

Casaús Arzú, Marta Elena, "Los proyectos de integración social del indio y el imaginario nacional de las élites intelectuales guatemaltecas, siglos XIX y XX", *Revista de Indias*, vol. LIX, núm. 217, 1999, pp.775-813. file:///C:/Users/admin/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DXMI0QSG/835-1325-1-PB.pdf.(검색일:2019.07.14.)

_____, "El mito impensable del mestizaje en América Central. ¿Una falacia o un deseo frustrado de las élites intelectuales?", *Anuario de Estudios Centroamericanos*, Núm. 40, Universidad de Costa Rica, 2014, pp.77-113. file:///C:/Users/admin/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2YS0MKQ4/Dialnet-ElMitoImpensableDelMestizajeEnAmericaCentralUnaFal-5073894.pdf.(검색일: 2019.07.14.)

Cordero Ávila, Mario, "Sociología guatemalteca de Miguel Ángel Asturias", *Diario Paranoico*, 11 de junio de 2007. http://diarioparanoico.blogspot.com/2007/06/sociologa-guatemalteca-de-miguel-ngel.html.(검색일: 2019.07.07.)

Corrales, José R., "La esclavitud en Cartago 1750-1775", *9° Congreso Centroamericano de Historia*, Universidad de Costa Rica, 2008, pp.788-805.

Cortés, Carlos, "ÍNSULA RARÍSSIMA(INSULARIDAD, MITOS Y DEMOCRACIA EN COSTA RICA)", *INTI Revista de literatura hispánica*, N° 49-50, 1999, pp.249-254. https://digitalcommons.providence.edu.(검색일: 2019.05.13.)

Gólcher, Erika, "Reflexiones en torno a la identidad nacional costarricense",

www.kci.go.kr

Anuario de Estudios Centroamericanos, Universidad de Costa Rica, 19(2), 1993, pp.91-99. file:///C:/Users/admin/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O5UPX6EX/Dialnet-ReflexionesEnTornoALaIdentidadNacionalCostarricens-5076050.pdf.(검색일: 2019.05.29.)

González, José y Campos, Antonio(co-autores), Galeano, Eduardo(colaboración), Guatemala, *Un pueblo en lucha*, Madrid: Editorial Revolución, 1983.

Masaya Portocarrero, Jessica, "Miguel Ángel Asturias, ¿racista o solo representante de su tiempo?" *Diario de Centro América*, 16/10/2017. https://dca.gob.gt/noticias-guatemala-diario-centro-america/miguel-angel-asturias-racista-o-solo-representante-de-su-tiempo/(검색일: 2019.07.10.)

McCreery, David, "El café y sus Efectos en la Sociedad Indígena", Luján Muñoz, Jorge(Director General), Herrarte, Alberto(Director del Tomo), *Historia General de Guatemala, Tomo IV, Desde la República Federal hasta 1898*, Guatemala: Fundación para la Cultura y el Desarrollo, 1995, pp.503-534. http://fundacionhcg.org/libros/lq/tomoiv/(검색일: 2019.07.20.)

Molina, Iván – Palmer, Steven, *Historia de Costa Rica*, San José(Costa Rica): Editorial UCR, 2017.

Montero Mora, Andrea M., "Una aproximación a los cambios en el paisaje en el Valle Central de Costa Rica(1820-1900)", *HALAC. Belo Horizonte*, volumen III, número 2, marzo-agosto 2014, pp.276-309.(검색일: 2019.05.29.)

Montero Rodríguez, Shirley, "La deconstrucción del mito edénico y el discurso de la identidad nacional, en Tanda de cuatro con Laura de Carlos Cortés", *Revista Comunicación*, Vol.22, añ0 34, No.2, julio-Diciembre, 2013, pp.13-25. https://revistas.tec.ac.cr/index.php/comunicacion/article/view/1610/1479.(검색일: 2019.07.29.)

Ortiz Martínez, Lesbia, "Reseña histórica de la producción del café en Guatemala y la migración de trabajadores temporeros agrícolas(1774-2000)", http://iihaa.usac.edu.gt/archivohemerografico/wp-content/uploads/2017/11/50_estudios_2005_ortiz.pdf, pp.70-108.(검색일:2019.07.21.)

www.kci.go.kr

Palmer, Steven, “Racismo intelectual en Costa Rica y Guatemala, 1870-1920”, *Mesoamérica*, 31, junio de 1996, pp. 99-121, https://dialnet.unirioja.es/servlet/articulo?codigo=2466989.(검색일:2019.05.29.)

Palmer, Steven – Molina, Iván, “Boronas de identidad nacional”, *Tópicos del humanismo*, n.113, diciembre 2004, Heredia(Costa Rica) : Universidad Nacional. https://www.repositorio.una.ac.cr/bitstream/handle/11056/2700/recurso_795.pdf?sequence=1&isAllowed=y(검색일: 2019.05.13.)

Pastor, Rodolfo, *Historia mínima de Centroamérica*, Madrid: El Colegio de México – Turner, 2013.

Perkowska, Magdalena, “Una nación imposible: el *Bildungsroman* e imaginarios culturales en *El misterio de San Andrés*, de Dante Liano, 2012. http://istmo.denison.edu/n24/articulos/25_perkowska_magdalena_form.pdf.(검색일: 2019.07.23.)

Rodríguez Sancho, Javier, “El estado en Costa Rica, la iniciativa pública y privada frente al problema de la pobreza urbana. San José(1890-1930)”, *Anuario de Estudios Centroamericanos*, 26(1-2), Universidad de Costa Rica, 2000, pp.57-77. file:///C:/Users/admin/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YZQ1NJV2/Dialnet-ElEstadoEnCostaRicaLaIniciativaPublicaYPrivadaFren-5075803.pdf.(검색일: 2019.05.29.)

Sancho, Mario, *Costa Rica, Suiza centroamericana*, en *Costa Rica: Dos visiones críticas*, San José(Costa Rica): EUNED, 2009, pp.3-56.

Sojo, Carlos, *Igualiticos. La construcción social de la desigualdad en Costa Rica*, San José(Costa Rica): EUNED, 2013.

Soto Quirós, Ronald, “Imaginando una nación de raza blanca en Costa Rica: 1821-1914”, *Amérique Latine Histoire et Mémoire*, 15, 2008: Etat et Nation I (19e siècle), https://journals.openedition.org/alhim/2930.(검색일: 2019.05.29.)

Urbina Gaitán, Chester, “Raza e identidad nacional de Costa Rica en el períodico El Costarricense (1846-1849, 1870 y 1837-1877)”,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Vol. IV, Núm. 146, Universidad de Costa Rica, 2014, pp.155-165. https://revistacienciassociales.ucr.ac.cr/mages/revistas/RCS146/

www.kci.go.kr

ChesterUrbinaGaitan.pdf.(검색일:2019.07.25.)

_____, “Identidad nacional, historia de elite y prensa en Costa Rica. Los funerales de Estado del Lic. Cleto González Víquez y del Lic. Braulio Carrillo Colina(1972)”, *Revista de Museología KÓOT*, 2017, Año 7, n.°8, pp.9–23. DOI: http://dx.doi.org/10.5377/koot.v0i8.5848, URI: http://hdl.handle.net/11298/380.(검색일:2019.05.13.)

Vargas, Manuel, “La biología y la filosofía de la ‘Raza’en México: Francisco Bulnes y José Vasconcelos”, en Granados, Aimar y Marichal, Carlos (compiladores), *Construcción de las identidades latinoamericanas. Ensayos de historia intelectual siglos XIX y XX*,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2004, pp.159-178.

“Poeta indígena rechaza premio”, BBC MUNDO, 24 de enero de 2004, http://news.bbc.co.uk/hi/spanish/latin_america/newsid_3425000/3425421.stm.(검색일: 2019.07.20.)

www.kci.go.kr

ABSTRACT

Comparison of the discourses on the national identities of Guatemala and Costa Rica in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 focusing on the concept of race in *Guatemalan Sociology: the social problem of the Indian*, by M. A. Asturias and the main discourses of Costa Rican identity

Jeon, Yong-gab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forms and meanings of the 'race concept' reflected in speeches on the national identities of Guatemala and Costa Rica during the time of the Liberal Reform (which spanned from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Guatemala, the cradle of the Mayan civilization, was known to be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percentage of indigenous population (more than 60% of the total population) in all of Central America, while Costa Rica was already known at that time as a 'white race' country.

Although there was a visible difference in the ethnic compositions of the two countries, they both showed a similar form of national identity based on the so-called 'bleaching of the nation'.

Nevertheless, behind the similar external form of national identity that the intellectuals of both countries aimed to build,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stemming from the peculiarities of the historical-social development an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racial composition of each population.

This study attempts to compare and contrast the national identities of Guatemala and Costa Rica by analyzing the representative speeches of the time: in the case of Guatemala, with a focus on a thesis by Miguel Ángel

www.kci.go.kr

Asturias and other discursive fragments of the 1920 Generation, while in the case of Costa Rica, with a focus on chronicles written by foreigners who visited the country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as well as the opinions of some intellectuals and politicians belonging to the Olympus Generation.

Likewise, this study is supported by the results of academic studies that have already been carried out by researchers in international academic circles, particularly the works of Casaús Arzú, Steven Palmer, Iván Molina, and Carlos Sojo, among others, since the subject at hand – Central American national identity – is yet to receive widespread attention in Latin American studies in Korea. This work is thus expected to hold bibliographical value and serve as a reference for future studies by Korean academics.

Key Words : Guatemala, Costa Rica, National Identity, Scientific Racism, Miguel Ángel Asturias, 1920 Generation, Olympus Generation

▌논문접수일 : 2019. 08. 10
▌심사완료일 : 2019. 09. 01
▌게재확정일 : 2019. 09. 03

www.kci.go.kr